

국립국어원 2009-01-39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27-14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9

- ▣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박 영 수(한남대학교)
- ▣ 조사 지역 : 대전·충남
- ▣ 조사 항목 : 북 메우기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박영수

제 1 부

사업 개요

| | |
|--------------------|--------------------|
| 제1장 연구개요 | 3 |
| 1. 조사 개요 | 3 |
| 1.1 민족생활어의 개념_3 | |
|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 |
| 1.3. 조사 방법_6 | |
| 1.3.1. 조사의 의의 |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
| 2. 조사 지침 | 7 |
| 2.1. 현장 조사 지침_8 | |
| 2.1.1. 일반 원칙 |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 2.1.3. 제보자 선정 기준 | |
| 2.2. 전사 지침_9 | |
|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 |
| 2.3.1. 일반 원칙 | 2.3.2. 세부기준 |
| 2.4. 뜻풀이 지침_14 | |
| 2.4.1. 기본 원칙 | 2.4.2. 뜻풀이 형식 |
| 2.4.3. 뜻풀이 용어 | |
|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 16 |
| 1. 조사 계획 | 16 |
| 2. 조사 보고 | 17 |
| 2.1. 제보자_17 | |
|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8 | |
| 2.3. 조사 장소_19 | |
| 2.4. 조사 내용_19 | |
| 2.5. 조사 결과물_20 | |

제 2 부 연구 내용

| | |
|--------------------------|----------------|
| 제3장 생애 구술 | 23 |
| 1. 자기 소개 | 23 |
| 2. 제보자의 대고 제작 경위 | 26 |
| 3. 한국의 북메우기 환경 | 28 |
| 4. 북 제작 과정 | 29 |
| 4.1. 북의 종류_29 | |
| 4.2. 북통 제작을 위한 나무 다루기_30 | |
| 4.3. 가죽 다루기_33 | |
| 4.4. 북 메우기 과정_37 | |
| 4.5. 제작 도구_38 | |
| 4.6. 북의 채색과 장식_39 | |
| 5. 앞으로의 바람 | 41 |
| 제4장 조사된 어휘 | 44 |
| 1. 북 메우기란? | 44 |
| 2. 재료 | 45 |
| 2.1. 주재료_45 | |
| 2.1.1. 나무 | 2.1.2. 가죽 |
| 2.2. 부재료_47 | |
| 2.2.1. 아교풀 | |
| 3. ‘북 메우기’ 도구 | 48 |
| 3.1. 나무 다루기 도구_48 | |
| 3.1.1. 빗쪽매본 | 3.1.2. 로꼬로칼, 끌 |
| 3.1.3. 금긋기자 | 3.1.4. 직각자 |
| 3.2. 가죽 다루기 도구_53 | |
| 3.2.1. 가죽 깎는 칼과 송곳 | 3.2.2. 무두칼 |
| 3.2.3. 우라구찌칼/개니끼칼 | 3.2.4. 개비끼 |
| 3.2.5. 태고 | |
| 4. 북 메우기 과정 | 58 |
| 4.1. 나무 다루기_58 | |

| | |
|---------------------------------------|-----------------------|
| 4.1.1. 쪽 내다 | 4.1.2. 북통 짜다 |
| 4.1.3. 살 잡다/곡선 잡다 | 4.1.4. 북통 다듬기 |
| 4.1.5. 쫄대 넣기와 서 파기 | 4.1.6. 광목 바르기, 한지 바르기 |
| 4.2. 가죽 다루기_63 | |
| 4.2.1. 염장 처리/염장 치다 | 4.2.2. 수구레 제거 |
| 4.2.3. 우라구찌 | |
| 4.2.4. 털 제거(재, 계분, 된장, 오줌, 석회, 쌀겨) 처리 | |
| 4.2.5. 개니끼 | 4.2.6. 가죽 깎기(스기질) |
| 4.2.7. 타래하다 | 4.2.8. 유안(疏安) 처리 |
| 4.2.9. 과수 처리 | 4.2.10. 재앙 치다 |
| 4.2.11. 물에 담가주기 | 4.2.12. 가죽 밟기 |
| 4.2.13. 무두질 | |
| 4.3. 북 메우기_74 | |
| 4.3.1. 가죽 펼치기 | 4.3.2. 원형틀 놓기 |
| 4.3.3. 가죽 자르기 | 4.3.4. 가죽 걸기 |
| 4.3.5. 줄 뜨다 | 4.3.6. 꿰매기 |
| 4.3.7. 못 박기 | |
| 4.4. 채색과 장식_79 | |
| 4.4.1. 단청 하기 | 4.4.2. 장식못 박기 |
| 5. 북의 종류 | 81 |
| 5.1. 북통 만들기 방식_81 | |
| 5.1.1. 통북 | 5.1.2. 쪽북 |
| 5.2. 채색과 장식의 유무_83 | |
| 5.2.1. 못북 | 5.2.2. 백북/백통 |
| 5.3. 도와 고_85 | |
| 5.3.1. 삭고 | 5.3.2. 교방고 |
| 5.3.3. 건고 | 5.3.4. 응고 |
| 5.3.5. 뇌고 | 5.3.6. 용고 |
| 5.3.7. 노고 | 5.3.8. 절고 |
| 5.3.9. 진고 | 5.3.10. 무고 |
| 5.3.11. 좌고 | 5.3.12. 노도 |
| 5.3.13. 뇌도 | |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91

참고문헌 94

부 록 95

찾아보기 109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개요

1. 조사 개요

1.1 민족생활어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민족생활어란 생활과 언어에 민족이란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민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선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실제 삶과 연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집단 혹은 민족의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가 형성·발전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사고 체계, 문화 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미 만들어진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한 민족이 살아 온 삶의 모습, 사고체계,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민족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활어의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의 재발견과 조사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 민족문화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문화도 포함된다.
-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한민족 구성원에 의하여 연구 변용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한민족이 우리 강역 안에서 이룩한 문화 외에도 외국으로 일시 진출하거나 항구적

으로 이주하여 이룩한 문화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선사시대의 생활양상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자연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에 의하여 이용되고 의미를 부여한 자취가 있을 때는 한국 민족문화로 다룬다.
- 현대 문화의 양상은 전통 문화와의 연관이 파악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국 민족문화이다.
- 민족문화는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아홉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앞으로 수행할 이 사업의 조사 대상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Sapir Whorf 가설,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에 보면 언어구조나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많은 언어 형식을 창조한다. 사용자가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눈, 얼음, 바람을 아주 세분된, 수십 개의 말로 표현한다. 필리핀 민도르의 하우누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500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한다. 실제 공인된 공식 도감의 분류보다 400여 종이 더 많다.

어떤 언어 사용자의 죽음은 그가 가진 독특한 생활어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 전통에서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강신표, 인제대).

이러한 관점은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누구를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이 관점을 토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란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란 바로 그러한 한국 민족문화 모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어휘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 민족 내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생활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음운

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 의미, 용례, 담화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합당한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어휘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언어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기존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관념의 형성,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새말이나 기존 의미의 변화, 문화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휘이므로 어휘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어의 음성, 어휘, 의미, 용례, 담론,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민족생활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와 한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유지, 발전 되어온 국어의 어휘, 의미, 용례, 소통양식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정리, 보관,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한다.

한 민족의 삶 속에 내재한 생생한 생활어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올바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소멸·쇠퇴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창출됨에 따라 국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전통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민족생활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용례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탈근대 혹은 지식·정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민족생활어의 조사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고령자일 경우가 많다. 민족생활어 조사의 긴급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를 살면서 일상의 온갖 생활어를 생생히 사용해 왔던 고령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생활어를 긴급하게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참으로 귀중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노년세대들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그들의 자존감도 회복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어도 조사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당대의 고령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생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한국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의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1.3.1. 조사의 의의

- 행위자(제보자) 관점에서 이해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 조사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의식적 행위와 실제적 행위 모두 포착하고 규명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탐색조사(Pilot Study)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참여관찰, 인터뷰,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담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고, 이것은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조사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과 융통성이다.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사례가 지닌 역사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적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

사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례가 지닌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조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의생활·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토속어(입말 구술 자료)를 채록하기 위한 기층생활어 조사와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업관련어 조사로 나뉜다.

- 기층생활어 조사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 채록
- 직업관련어 조사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과 연관된 생활환경, 제례 의식, 민간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 채록¹⁾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층생활어 조사는 앞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표준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어휘와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그 외 기존의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층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 항목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격화된 조사방식으로 생활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질문지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방법론을 활용하며, 구술체 자료(입말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수집한다. 아래와 같은 분야의 어휘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질문 조사방식으로 조사·수집 정리한다.
 가) 입말 구술 자료 : 일생의례, 생업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세시풍속, 민속놀이, 질병과 민간요법, 특수 직업 어휘농업, 어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
 나) 어휘 자료 : 민족 고유 전통문화 어휘, 직업어 자료

2.1. 현장 조사 지침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토속생활어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같은 대상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만약 조사된 어휘가 전형적인 특징(의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어휘 항목으로 선정하고, 음운론적 변종들은 어휘 항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의 용례는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명칭은 질문지의 그림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영하여 제출한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들은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어휘는 인간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를 찾아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조사 분야 중에서 지리적 변종이 예상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 선정
- 지리적 변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지역 선정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물에 관한 생활어를 잘 아는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체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어 조사는 조사 대상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을 따르되, 조사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한다.
- 직업 관련 제보자의 경우 조사 대상 직업을 10년 이상 지속한,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관록 있는 제보자를 선정한다. 단 조상 때부터 동일 직업을 가지고 이어온 제보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주변에 동일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어 구별을 위해 또 다른 제보자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ㅡ]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키’이면 ‘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기’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기’이면 ‘기’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시’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랍 → 사랍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둔다.
예) 바시 → 밧이(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듬기다, 안기다>앙기다, 암개>앙개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홍년)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ㅌ’와 ‘ㄷ’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썩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촌(삼춘),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ㅓ>ㅑ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ㅕ>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혜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ㅡ’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ㅏ’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밭), 뽕다(밭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ㅌ>ㅍ’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ㄷ>ㅌ’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불(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벵이다(배우다)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홀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㉔. ㅣ>에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씨(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㉕. ㅏ>ㅓ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쇠, 꼬랑>피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㉖. ㅓ>개 : 괴기>게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피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㉗. ㅓ>기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귓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㉘. ㅐ>ㅓ : 팽이>핑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팡이>산토펡이, 께>피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㉙. ㅂ>기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㉚.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㉛.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㉜.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㉝.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꽁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꽁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㉞. ㄱ>ㅎ : 아곱>아흡, 똥>똥,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양기다, 암캐>양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⑰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양기다>양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⑲ ‘ㄴ’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풀~소불(부추), 장팍~장꼬방

(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축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풍(병풍), 팍나(밤낮), 폴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웃(웃), 빛(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견다), 짊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2.4. 뜻풀이 지침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종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북은 물체를 두드려 소리 내는 타악기의 총칭이다. 북은 크게 고(鼓)와 도(鼗)로 구분된다. 고에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건고·응고·삭고·뇌고·영고·노고·절고·진고·교방고·좌고·용고·풍물북·소리북·절북 등이 있고, 북통에 끈을 매달아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도에는 영도·노도·뇌도 등이 있다.(송혜진, 2002)

북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전승해왔다. 오리엔트 문화권이나 중국 문화권에 이미 북의 사용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다.(송혜진 외, 2006)

북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악기가 아니다. 각종 의례에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도구였고, 귀신을 쫓거나 액을 물리고 북을 비는 의식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도 굿판에선 무당 혹은 법사가 북과 장구 장단에 맞춰 경을 읊조린다. 예로부터 충청남도와 대전에서는 앉은굿²⁾이라 불리는 독특한 굿판에서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염원하였다. 또한 불교의례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인 사자후를 상징한다.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에도 지속되어 사찰에서는 매일 북을 두드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편, 북은 군대에서 신호를 알리는 필수품이었다. 전장에 나가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기능도 담당하였으며, 진군과 회군의 명령도 전달하는 기능을 하였다. 북소리는 넓은 전장에서 사람의 육성으로 할 수 없는 기능들을 대신하였던 셈이다. 또한 일상에서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공동체 사람들을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사회적 신호’ 수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려 자신의 딱한 상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흥과 신명을 돋우는 일상의 악기이기도 하다. 북은 축제와 민속놀이를 주도하는 기본 악기였으며, 또한 춤과 노래의 반주 악기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특히 판소리에서는 ‘일고수이명창³⁾’의 개념을 창출하여 독자적인 예술영역을 구축하였다.(송혜진 외, 2006) 판소리에서 북소리가 없음을 상상해보자.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2) 다른 지역과 달리 법사가 앉아서 독경을 외는 형식의 굿이다. 법사는 남자이며, 춤을 추거나 공수를 내리는 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앉은굿을 달리 일컬어 앉은반이라고도 한다.

3)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첫째이고, 소리 잘하는 이는 그 다음임을 이르는 말. 아무리 명창이라 해도 고수가 잘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소리의 서사를 풀어낸다는 것이 무척이나 지루하고 힘겨운 일일 것이다.

북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흥과 신명을 돋우는 악기이자, 의례에 사용되는 악기이다. 지금까지의 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의 상징성과 북의 종류에 따른 음악적 가치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을 뿐, 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북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기록을 찾기도 무척이나 어렵다. 또한 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과정 등을 담은 기록을 찾아 보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북메우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인의 말을 조사하여 후대에 남기는 작업은 더더욱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온갖 핍박을 받으며 기본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가슴 아픈 과거를 안고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는 일본어의 간섭을 심하게 받으며 용어의 일본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용어들이 변질되었는데, 북 메우는 과정의 용어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북이 갖는 여러 상징적 의미를 이유로 북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북을 치는 행동까지도 제약받았다. 이런 문화적 단절은 우리의 전통공예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임에 틀림없다. 민족생활어 조사는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를 조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여기서 사라져가는 말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오염된 민족생활어에 다시 숨을 불어 넣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에 오늘날 이미 특수 직업군이 되어버린 북 메우기 장인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민족생활어를 조사하고 작업과정에서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오염된 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 연번 | 조사 대상 | 이름 | 성별 | 나이 | 거주지 | 기타 |
|----|-------|-----|----|----|------------------|-------------------------|
| 1 | 북 메우기 | 김관식 | 남 | 5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

북메우기 악기장 김관식은 삼대에 걸쳐 대를 이어 북을 만들어 오는 장인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도 북을 만드셨으니 자연스럽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북을 만들기 시작했다

는 그다. 예전에 우리의 전통문화가 홀대받던 시절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그는 전통공예품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북메우기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회식에서 사용한 용고를 직접 제작하여 기증하는 등, 국가의 국제적 행사 때마다 북을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1993년 대전엑스포,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에도 그는 북을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북만을 생각하는 김관식은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에서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북메우기는 대부분 가죽다루는 일을 기피한다고 그는 말한다. 가죽다루는 일이 매우 어렵고, 또 지저분한 일이기에 꺼려한다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 그의 공방을 찾았을 때 코끝을 자극하는 가죽냄새가 났던 것을 기억한다. 이런 이유로 점차 전통 방식의 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드물고 쉽게 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현재는 중국 등지에서 들여오는 값싼 가죽도 사용된다고 하니, 그의 수고스러움과 고집이 대단하기만 했다. 그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북을 만드는 일을 선택하여 가업을 이었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전통 방식의 북메우는 일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의 공방에는 북메우기를 배우려는 이들이 그와 함께 북메우기를 함께 하고 있다.



[사진 1] 제보자 김관식



[사진 2] 작업하는 김관식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09년 6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우선 문헌조사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진행한 문헌조사에서는 참고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현장조사는 문헌조사가

끝난 후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루어졌다.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번 | 세부 조사 기간(월, 일) | 비고 |
|----|-------------------|-------|
| 1 | 문헌조사 | |
| 2 | 생애 구술 조사 | 대전광역시 |
| 3 | 북의 종류에 대한 조사 | 대전광역시 |
| 4 | 북메우기에 필요한 재료 조사 | 대전광역시 |
| 5 | 북메우기에 필요한 도구 조사 | 대전광역시 |
| 6 | 북통 제작에 대한 조사 | 대전광역시 |
| 7 | 가죽 다루기에 대한 조사 | 대전광역시 |
| 8 | 북메우기에 대한 조사 | 대전광역시 |
| 9 |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2.3. 조사 장소

조사는 김관식의 공방(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에서 진행하였다. 김관식의 공방은 살림집과 겸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에서는 제작한 북을 판매하였다. 김관식의 공방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을 메울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었고, 작업 과정에 따라 작업을 하는 공간도 달랐다.

2.4.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북메우기와 관련하여 북의 재료, 제작도구, 제작과정, 종류의 범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내용 | 세부 조사 항목 |
|-----------|--|
| 북의 종류 | 통북, 쪽북, 못북, 백북, 백통, 도,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용고, 절고, 진고, 무고, 좌고, 노도, 뇌도 |
| 북메우기 재료 | 나무, 가죽, 아교풀 |
| 북 메우기 도구 | 빗쪽매본, 로꼬로칼, 금긋기자, 가죽 깎는 칼, 송곳, 우라구찌칼, 무두칼, 개비끼, 태고, 개니끼칼 |
| 나무 다루기 과정 | 쪽내다, 북통 짜다, 살 잡다, 곡선 잡다, 북통 다듬기, 쪽대 넣기, 서 파기, 광목 바르기, 한지 바르기 |
| 가죽 다루기 과정 | 염장 처리, 염장 치다, 수구레 제거, 우라구찌, 털 제거 처리, 개니끼, 가죽 깎기, 스키질, 타래하다, 유안 처리, 과수 처리, 재앙 치다, 물에 담가주기, 가죽 밟기, 무두질 |
| 메우기 과정 | 가죽 펼치기, 원형틀 놓기, 가죽 자르기, 가죽 걸기, 줄 뜨다, 꿰매기 |

2.5.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일을 하게 된 동기)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북 메우기의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조사내역 구분 | 조사어휘 | | 음성자료 | | 영상자료 | |
|-------|------------|--------|--------|-------------------|-------|------|-----|
| | | 총 어휘 수 | 미등재 어휘 | 구술/전사 | 분절 음성 | 사진 | 동영상 |
| 북 메우기 | | 83 | 53 | 7/7 ⁴⁾ | *83 | 115 | 31 |

4) 음성파일 7개의 총 전사 시간은 1시간 30분임.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생애 구술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생애 구술

1. 자기 소개

@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은 김관식이고요.

@ 올해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나이는 인제 양띠. 55세.

@ 언제부터 처음 북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까?

아. 북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인제 내가 이제 3대째이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북을 언제부터 배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것은 즉 낮에는 공방이었고 밤에는 잠자리였으니까 또 어머니도 같이 함께 아버님하고 북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보다도 뱃속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물론 이제 초등학교는 겨우 다니기는 했어요. 졸업장까지는 못 받았었고 늘상 보고 또 잔심부름도 해오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뱃속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10대 20대 이런 시절이,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오로지 이 북 기술에 대한 일에만 매달려 왔었고 그때 10대 20대 때 봉급도 한 번도 못 받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해왔었고. 이제 26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부터 인제 제가 봉급을 받고 살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대부분 10대 20대 없이 좀 허무하게 지냈다할까? 하튼 내 청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 3대째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아버님께서도 북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물론 이제 할아버님도 하시고 그 이후는 인제 아버님이 하시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3대째 이어오고 있는 거죠.

@ 그러면 주옥 대전에 사셨습니까?

물론이죠. 원래 동구 성남동에서 10대 20대를 보내고, 결혼을 거기서 하고 이쪽으로 온지가 83년도에 이 원촌동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온지도 벌써 몇 년인가. 27년째인가 이렇게 되는 거 같으네.

@ 많이 변했죠? 예전에 처음 오실 때하고.

아. 여기 무법천지였지. 이 지역이. 당시만 해도 동구 성남동에 있을 때는 시내라고 했을, 시내였었다. 할 수가 있었겠고, 뭐 요쪽은 정말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법천지 속에서 그야말로 농노길, 오솔길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와서 현재 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루고 있는 것이죠.

@ 실례지만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인제 1남 1녀. 아들이 인제 큰 애고, 바로 밑에가 딸이고. 또 부인하고 해서 인제 네 식구죠. 그 원래는 우리가 가족이 많아요. 다 형제들 따질라면 12남매고 6남 6녀 중에 6째고, 아들로는 내 넷째이죠. 사실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5명 정도 종사하고 있다가 현재는 4명만 종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 그러면 선생님 형제분들도 이 북 만들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인제 꼭 만든다기보다는 인제 종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제 그 셋째형은 주로 장구 제작을 많이 하고, 넷째인 나는 북 제작을 많이 하고, 둘째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주로 판매 전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업계에 현재 네 명이 종사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 혹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의 10대 20대는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북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자녀분들 중에도 만약에 이 만드는 것을 전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 당연하죠. 인제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인제 일본도 가보면은 대대손손 4대 5대 10대 12대 뭐 15대 막 이렇게까지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본의 최대 최고의 북공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는 12대까지 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 이거다 해서 4대 5대 우리도 7~8대 영원히, 아니면 영원히 대대손손 물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전 충남권 전국에서도 몇몇 분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하게 그 북이란 선생님에게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썄 이제 북이라면 소리가 생명이니까 아..어쨌든 좋은 북소리가 나아지만이 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얼마나 이 북을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지만이 북의 생명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 북은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아버님, 선생님의 아버님 시절에 일제강점기 시기였잖습니까? 그때의 북 제작 여건이라든지 혹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실 수.

아 그렇죠. 인제 그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왔죠 인제. 북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나, 당시 어렸을 때 보면은 재속에 다가 가죽을 또 재하고 함께 나뒀다가 했던 상황도 있었고, 또 오줌처리해서 했던 경우도 있고, 계분처리한 경우도 있고, 또 쌀겨처리한 경우도 있었고, 그 이후로 석회처리 뭐 이렇게 진화가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어떤 오줌처리, 된장 처리 등이 옛 방식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석회처리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해서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진화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조상들은 그 북 제작을 할 때는 아마 그 모든 여건상 그것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줌처리, 계분처리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왔다 얘기할 수 있겠고, 특히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 아버님한테 얘기 들을 때 일제시대에 우리가 36년을 압박 받을 때에 이 북 장구를 몰래 만들어서 쳤다라는 얘기에요. 그 북을 만들어서 치게 되면은,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다 뺏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지 안했느냐. 그래서 그 뭐 재처리, 계분처리, 오줌처리, 된장처리, 쌀겨처리 이런 식으로 아마 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물론 계분처리, 쌀겨처리 등 이렇게 하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만은 나중에서는 그래도 석회처리가 제일 낫다해서 지금에 와서 석회처리를 하면서 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 석회처리라고 하면 가죽을 처음으로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인제 그 석회처리, 된장처리, 오줌처리 등등 이런 것들은 인자 일단 가죽 북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는 일단 털이 제거가 돼야 되니까 털을 일단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 잠시 벗어난 이야기지만 그 원촌동이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왜 원촌동인지.

아. 여기 그것은 뭐 이 지역의 원래 원촌리였지. 원촌리. 여기서. 여기서 원촌리였는

데, 대전시 편입 이후로 직할시가 되면서 원촌동으로 변화가 된 거죠 뭐.

@ 과거에는 그럼 원촌리.

여 구즉면 여기가 구즉면 원촌리였다.

@ 금 예전에는 대전이 아니었다는 말씀.

어 여기가 대전시 대덕구, 대덕구도 아닌데, 여기가 대전시. 하튼 여기가 대전시 원촌. 하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군? 원래는 인제 도로 여 안에 있었던가 여가? 충청남도 무슨 군 원촌리 이랬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2. 제보자의 대고 제작 경위

@ 그 선생님 그 북을 그렇다면 50년 55년을 만드신 건데 지금 보니까 수상경력이라든지 여러 북을 제작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북 작품이라든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수상경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인제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북 기술을 배우면서 그 때 당시는 큰 대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막연한 생각을 해봤죠. 내가 언젠가는 성장을 해서 큰 대북을 좀 만들 것이다.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83년도에 인제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84년도엔가 바덴바단에서 IOC위원장이, 서울 꼬레아. 즉 올림픽 개최지가 우리나라 확정이 지는 순간 그 TV 장면을 보고 아! 이때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북을 제작을 해서 올림픽에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한테 우리 전통문화예술 좀 보여주고 이런 큰 북소리 좀 들려주자. 그래서 무작정 뭐 우리 가족 형제들 다 만류했고, 주위사람도 다 만류를 하고, 그랬던 생각이 지금 나네요. 그래도 나는 이제 아니다.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어떤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어려서 그 꿈을 가지고 무작정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참 잘했다. 정말 지금 와서는 어떤 보람을 느낀다고 할까?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올림픽 용고.

@ 올림픽 용고는 제작기간이 얼마나.

한 2년 6개월 걸렸는데요, 이제 그런 시간이 걸려졌던 것은 그 워낙 큰 북이다 보니까 당시만해도 그런 소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크다면은 700킬로 800

킬로 하는 소가 있었는데 그런 소 가죽으론 가죽이 작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산 종자 소를 수입을 해서 그렇게 제작하게 됐던 것이죠.

@ 올림픽 용고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처음으로 가장 큰 북을 만드셨던 거라서 감회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용고도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셨고, 대전 엑스포.

아, 이제 그건 많아요. 그 올림픽 이후로 우리 청와대 춘추관에 있던 것도 올림픽 용고랑 같고, 또 하나 그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가보시면 통일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림픽 용고가 같은 북이 안치가 돼있고, 그 이후로 대전 엑스포 때 엑스포 용고라고 해서 올림픽 꺼보다 더 큰 것을, 나름대로 기록 갱신이라고 할까 그런 뜻으로 해서 더 크게 제작을 했었고, 그 후로 월드컵 북도 크게 제작을 했고, 작년 건군 60주년 기념에 사용했던 북도 그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의 북은 건군 60주년에 사용했던 그 북이 현재로서는 가장 큼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 수없이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분 다 제가 제작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다 모든 걸 다 얘기할라면 많아가지고.

@ 제작 기간도 기간이지만 제작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물론이죠. 비용은 첫째는 소가죽을 구하는데 인제 그 나무하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어떤 그러한 큰 소를 찾아내고, 가죽을 바늘구멍 하나 없이 잘 벗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 그리고 항상 기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증을 하시는 이유는.

아, 글썄 이제 그 나는 뭐 어려서 꿈을 이뤘다. 할 수가 있겠죠. 대북을 만들어서, 만들고 싶었다. 88 서울 올림픽 때 사용을 했던 것이 그런 것이 꿈을 이뤘다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기네스북에 올려볼라고 했더랬어요. 그랬더니 당시만해도 일본에 동남아시아권은 일본을 경유해서 기네스북에 올리게 돼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개네를 통해서 올리진 않겠다. 말하고 2~3년 후에 아마 우리나라도 올림픽, 아냐 올림픽이 아니라 기네스북 협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북으로 기네스북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름대로 기록 갱신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해왔지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북이 올림픽 꺼 보다는 울림판 지름이 더 크고, 북통도 더 큼니다. 즉, 올림픽때 사용했던 것은 울림판 지름이 2미터이고, 북통 길이는 2미터 30이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 갱신하면서 건군 60주년에 썼던 북은 울림판 지름이 2메다 40, 북통 길이는 2메다 70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인제 나름대로는 제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2메다 70의 3메다 짜리를 지금 북통은 해냈어요. 그 현재는 가족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런 큰 뜻을 갖고 있다면 저한테 거대한 소가족이 나한테는 숙젠데 주어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선생님께서 만드신 용고가 울려 퍼질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글썄 인제 뭐.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겠죠. 특히 뭐 저는 올림픽을 자주 이쯤으로 해서 얘기한다면은 저렇게 사용할 줄을 몰랐죠. 올림픽 때 강상제가 있었어요. 이 배에다가 북을 올려놓고 한강에서 거슬러 잠실주경기장을 올라가 가지고 잠실주경기장에 들어올 때 용고행렬로 들어왔어요. 용고행렬로 들어와서 그 용고행렬이 뭐냐면 원래 그 임금님 행렬이죠. 임금님 행렬인데 용고가 올라 가 있기 때문에 용고 행렬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북을 세 번을 침과 동시에 애드벌룬이 올라가면서 청와대가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다가 집에서 텔레비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누구 못지않게 눈물을 흘렸고, 나중에는 마음 뿌듯한 걸 느꼈고 그랬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만류를 해도 내 뜻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에서 지금도 잘했다. 어떤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정말 잘했구나. 마음 뿌듯하고 지금에 와서도 흐뭇한 마음 감정은 있습니다.

3. 한국의 북메우기 환경

@ 전 세계적으로 북은 굉장히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아시아 삼국,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나라들의 북과 우리나라 북의 큰 특징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인제 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타악기는 다 있다 이케 얘기할 수 있겠고. 드림이라는 것을 어떤 소가족이 아닌 특수 비니루로 만들었다고 할까? 그렇게 만들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소가족으로 해서 북을 만드는 것이고, 글썄 다른 나라도 여러 각도로 염소가죽 가지고도 하고, 개가죽 가지고도 하고, 뭐 심지어는 고양이가족 같은 거래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타악기는 다 만들어서 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 어떤 큰 차이점들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글썄 이제 타악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크기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모형도가 다 다

양하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또 다른 데는 어떤 곁에 중국 쪽에는 빨간색을 북통에다 칠한다든지, 일본같은 경우는 나무에 흰 나무 색깔을 칠해서 북을 제작한다든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로 대북의 경우는 좌청룡 우백호가 있듯이 용 두 마리를 그려 넣죠. 한 쪽에는 황룡. 한 쪽에는 청룡. 용 두 마리를 그려 넣어서 제작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북의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그런 대북은 그렇게 한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이외에는 나무 원색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죠. 만드는 북이 종류가. 일반적으로는 불과 몇 종류 아닐 께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천 역사를 흘러온 것으로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다 기억은 못해도 뭐 예를 들자면은 뇌도, 용고, 삭고, 교방고, 절고, 도, 좌고, 줄북, 썰기북, 못북, 고장북, 뭐 글썽 다 얘기 안하지만 상당히 많아요. 옛 전통적인 옛 오천년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화 해온 걸로까지 따지고 보면은 약 한 40, 50종류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 선생님 그 젊으셨던 시절에, 처음 북을 만드셨을 때랑 지금의 북을 만드는 환경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북 만드는 환경은 뭐 엄청나게 변해진거죠. 당시에는 소가죽, 한 마리 정도 사다가 겨우 북 몇 개 정도 만들어서 팔구 뭐 그렇게 인제 생활해온 것이고. 우리나라 그 전통 약기가 언제부터 활성이 됐느냐. 얘기하고 싶다면은, 8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천천히 국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가야금, 거문고 뭐 이런 장구 이런 거 등이 80년도 들어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활성이 많이 돼있고, 지금은 옛보다는 엄청난 그 북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화해서 더 좀 소리도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 북 제작 과정

4.1. 북의 종류

@ 북의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고와 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의 종류는 뭐 다양하죠. 오천 역사로 볼 때는 도, 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북도 물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와서는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에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썰기북, 못

북, 줄북, 고장북, 이제 뭐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삭고, 뇌고, 용고도 있고 노고, 절고, 진고, 교방고, 무고, 좌고, 뭐 등등 해가지고 용고라고도 있고 노도, 뇌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도.

@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썰기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 썰기북은 저 우리 오천년 역사를 흘러 볼 때 농어민들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그 가죽을 다루서 다루기 하면서 농어민들이 만들어서 칠 때 사용해왔던 것이 이제 전통 썰기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그러니까 농악북을 썰기북이라?

그렇죠. 썰기북을 요즘 와서는 사물놀이의 농악에 사용되는 것을 전통 썰기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 북은 종류별로 제작과정이 많이 다르겠네요?

뭐 인제 가죽처리 등 이런 것은 거의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장식 내지는 통원형 내지는 이런 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 가장 작은 북은 뭔가요?

가장 작은 북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야 하나? 그것은 글썸. 가장 작은 북은 뭐가?

@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마당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소고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작은 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소고는 글썸 이제 우리로서는 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가장 작은 북이다. 하는 것은 작은 북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지, 뭐다 이거는 단어가 그러네요. 작은 북이 못북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줄북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장식용 북으로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출하긴 그러네요.

4.2. 북통 제작을 위한 나무 다루기

@ 나무를 고를 때 나무는 어떤 나무를 주로 사용했었습니까?

글썸 인제 그 나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오동나무하고 소나무를 쓰게 되는데.

@ 소나무는 육송을...

물론이죠. 육송이죠. 그것을 이제 북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게 제작을 하는 거죠. 작은 북일 경우에는 주로 오동나무를 쓰고, 이제 우리가 고장북이다 시조북이다 판소리 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북통에 나무로 때려주고 치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로 써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을 만들 때도 역시 소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의 성질이 좀 질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단단하고 질기고 그러니까 큰 북이나 고장북 할 때는 소나무를 사용하죠.

@ 큰 대북같은 경우에는 그 본래의 크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깎아서 안쪽을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북들은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근데 뭐 그 쪽북이라고 하고 있고 통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쪽북은 쪽을 내서 인제 그것은 즉 재료가 없죠. 큰북은 역시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쪽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쪽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통북이라는 것은 나무 원형, 통나무 그대로 깎아서 인제 만드는 것이 통북이라 하는데. 그런 것은 역시 큰 북에는 큰 나무가 없으니까 작은 북일 경우에 인제 통북이 있는 거죠.

@ 통북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재질이 부드러운 오동나무 위주로 통북을 만들겠네요?

물론 결코 그거는 아니에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장북이나 우리 전통적인 쇠기북이나 이러한 거 정도는 통북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 쪽북 만들기에서 쪽을 만들고 쪽을 어떻게 붙이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인제 그 원형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인제 그 원형을 그려 놓 다음에 곡선을 잡는 거죠. 곡선을 잡는다. 아니면 살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살을 잡어서 이제 그 원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 살을 잡는 도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살 잡는 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짜구로 사용해서 잡았었고 뭐 지금와서는 기계 대패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살을 잡는 거죠.

@ 쪽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쪽이 완성이 되면 쪽을 붙이는데 쪽을 붙이는 재료는 무엇이?

인제 뭐 과거에는 그 우리가 인제 그 스기 작업을 해서 가죽을 깎는다고 하죠. 가죽을 깎아 준 찌꺼기가 인제 수구레라고 하는데 그 수구레를 인제 그 깨끗이 물에 빨아서 연탄불에 하루 이틀 인제 끓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녹습니다. 녹으면은 그게 아교가 되거든요? 그 아교를 인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 그 수구레를 끓인 아교 말고는 다른 재료는 없습니까?

아 인제 그 찹쌀, 인제 밥도 되는 거죠. 밥을 해서 이걸 짜구로 인제 그 망치로 찢다고 하죠. 찌면은 인제 그것이 상당히 찰진다고 할까? 뭐 그러한 그 된 상태에서 나무에 발라서 또 쪽북을 이렇게 또 만들게 되었고.

@ 아까 썰기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썰기북에서 썰기는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아 그것 때문에 썰기라카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썰기북은 위에 중간부분에 썰기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것은 왜 만들어 넣게 되냐면은 북을 오래 사용하다가 보면은 가죽이 좀 뭐 꺼진다고 할까? 늘어나죠. 그런 거는 그 줄을 당겨주기 위해서 썰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그 북을 인제 썰기북이다 이렇게. 썰기를 만들어 넣던거죠.

@ 북통 만들기라고 하는데 북통 만들기를 다른 말로 예전에는 어떤 말로 했는지 아십니까?

뭐 예전에는 북통 만들기면 북통 짠다. 북통을 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 북통을 다 쪽북을 내서 쪽북에서 쪽을 붙여서 북통을 만들려면 북통이 서로 각이 좀 맞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각이 맞지 않을 땐 어떻게 각을 맞춰서 합니까?

물론 인제 그 여러 쪽을 붙이다 보니까 좀 뭐 쪽 고르지가 못하겠죠. 어 무두칼. 작은 무두칼이 있습니다. 원형을 더 해주는 무두칼이 있는데 그걸로 인제 깎아주게 되죠.

@ 무두칼로 깎아주면 된다. 이제 그 지난번에 보니까 안에 어떤 테두리 같은 걸 넣는 거 같은데 그 테두리는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 이제 쫄대라고 하죠. 이제 그것은 원통에는 사실 안 들어가는데 우리 원통이라고 하는데 원통이나 통북에는 넣질 않습니다. 원통같은 경우는 인제 북통을 그 깎아줄 때에 안에다가 서라고 하죠. 서. 서를 이 만들어서 북통은 통북에는 그렇게 만들어

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쪽북일 때에는 여러 쪽을 붙이다 보니까 안에다가 풀대를 너주게 되는 거죠. 너주게 되면은 서로 이어졌던 부분이 더 교정도 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인제 풀대를 넣는 거죠.

@ 방금 서라고 하셨는데 서가 뭘 이야기...

서는 인제 풀대 대신에 원통에는 애시당초 팔 때에 서를 너서 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라고 하는 거죠. 안에 풀대 대신 원통은 서를 풀대를 너서 인제 만들지 않. 풀대를 안 넣고 원통 깎아줄 때 서를 이미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니까 일종의 쪽북에는 풀대가 서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4.3. 가죽 다루기

@ 예전에 소를 도축해서 가죽을 얻게 되면 여름같은 때에는 가죽도 어쨌든 상하고 썩는 거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을 거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생가죽을 어떻게 길게 가도록 하는 그런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가죽은 절대적 염장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염장처리를 해야 되요. 일단 소가 소를 잡게 되면은 인제 가죽이 그 핏기가 있죠. 이 피 제거도 해야 되고, 하루 이틀 있다 보면은 가죽이 인제 상하게 되죠. 썩게 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니까 핏기 제거도 하고 가죽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장처리를 하게 됩니다. 염장처리를 보통 한두 달 정도는 염장처리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는 핏기가 싹 빠지고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가죽은 인제 크게 나누어서 암소가 있고 황소가 있는데 암소는 북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원인은 가죽이 얇아서 사용을 안 하고, 황소가죽을 사용하게 되는데 황소도 1, 2년 되는 황소는 좋지 않습니다. 4, 5년 정도 되는 그런 황소 가죽을 선별 해가지고 들여와서 일단 이제 그 물에다가 담구야죠. 그것은 뭐냐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물에 담가 주면은 하루 이틀 담가 주면은 그 염장처리 소금기가 인제 빠지게 되죠. 빠진 다음에 이것은 인제 가죽이 다루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죽 다루기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죽 다루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처리도 하고, 또 석회처리도 하고, 계분처리도 하고, 유안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인제 일단 석회처리를 한 다음에 털을 인제 그 뽑게 되죠. 뽑은 다음에 인제 어 유안처리도 하고, 계분처리도 하고 글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서 또 표백도 하고 재단을 해서 인제 합판에 박아주게 이렇게 되는 거죠.

@ 가죽할 때 아까 황소, 거세하지 않은 황소 가죽이 가장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황소가죽 말고 다른 가죽으로는 어떤 가죽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썩요. 인제 물론 물소가죽도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물소가죽 가지고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북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로서는 해볼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할까. 가죽처리를 잘하면은 물소가죽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암소가죽이나 거세한 황소의 가죽은 가죽이 얇는데 가죽이 얇으면 가죽이 두꺼운 것보다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되나요?

인제 거세한 소나 암소 가죽은 북으로서는 가죽이 너무 얇아요. 즉 얇다는 것은 북을 만들었을 때 동동 소리가 아닌, 땡땡 소리가 나죠. 그서 북은 황소, 거세하지 않은 황소로 제작을 해야만이 북소리가 북다운 생명력 있는 북소리가 나는 거죠.

@ 생가죽에 소금을 처리하는 염장처리하고 가죽을 빼는 작업을 별도로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까?

인제 그 타래라는 말이 있었는데, 타래는 인자 그 스기질 한 다음에, 가죽 깎아 준 다음에 일단 가죽을 깨끗이 세척을 해주어야 되니까 타래한다. 타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도 뭐 타래하자. 이렇게 하니깐요. 타래를 한 다음에 인제 표백처리, 과수처리 이런 것이 그 후로 들어가는 거죠.

@ 염장처리는?

염장 친다. 라는 것은 인제 아까도 뭐 얘기 했듯이 소를 잡으면 바로 가죽이 상하니까 상하지 안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가죽의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장을 친다. 염장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 수구레를 아까 제거 하신다고 했는데 가죽 다루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죽 다루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해줘야 할라나? 가죽을 인제 뭐 다루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재처리, 석회처리, 계분처리, 오줌처리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재료가 없을 때에 재처리, 계분처리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죽의 재양치기가 있죠. 재양치는 원인은 왜 재양을 치느냐 하면은 원형을 아무리 재단을 하더라도 가죽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형을 잡어주기 위해서는 가죽도 늘려주기 위해서 재양을 치는 거죠.

@ 재앙을 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앙을 뭐 치면은 보통 한 2, 3일 정도 말려주죠. 말려주면은 다 말립니다. 말르고 인저 못을 빼준 다음에 다시 물에다가 인저 담가주면은 가죽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그 부드러워진 것을 인제 다시 꺼내가지고 이것을 무두질 하게 되는건데, 무두질 하기 전에 사실 이 가죽을 또 밟아줍니다. 자루에 너가지고. 밟아주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해지죠. 그런 다음에 무두칼로 무두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 준 다음에 다시 그 원형틀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인제 그 가죽을 걸어 준 다음에 일일이 꺾매기를 하죠. 꼬매 준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꼬맨다. 꺾매기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가죽을 무르게 하기 위해서 가죽을 밟아주고 무두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된 것 같았는데 요즘 손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제 무두질을 인제 뭐 허지만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제 그 뭐냐면은 태고라고 있습니다. 태고. 거기다 원형 나무로 만든 큰 원형통이 있는데 거기다 넣고 돌려주면은 가죽이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면은 그것이 우리는 무두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더 조금 더 쉽고 힘이 들 들어가면서 더 무두질이 더 잘되면서 유연해지고 소리가 더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다른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과수처리, 유안처리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수처리, 유안처리가 무엇인지 설명 좀?

과수라는 거는 현재 와서 사용하는 거죠. 그거 과거에는 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제 즉 뭐냐면은 과일을 먹다 그 먹을라고 보면은 어느 상점에 가 보면은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과일, 깔끔한 과일 같은 걸 보고 눈으로도 먹게 되는데 뭐 이런 북도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과수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과산화수소라 그러죠? 그것이 인제 가죽을 깔끔해주고 표백이 되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과수를 사용하고 현재는 있는데 결국은 옛날에는 과수를 사용 안 했죠.

@ 예전에는 사용을 안 하셨던?

네.네.

@ 털을 소털을, 가죽에 붙어 있는 소털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거를 하지 않고도 복을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저 아주 오래 전에는 제거가 들 된 것을 만들어 쳤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어려서 배울 때도 소털에 묻어있는 제거가 안 된 거를 복을 만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인제 당시의 기술로 봐서 제거가 완전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그때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또 조금 변형됐지만은 거기에 인제 그 뭐냐. 남은 털을 무뎛대에 올려놓고 이제 그 제거를 해주죠. 표면에 보면은 털 뿐이 아니고 가죽 표면에 보면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도 제거 해주고, 그 뭐 그러는 거죠.

@ 때를 벗기는 작업이 예전에 썼었던?

뭐 이제 개니끼라고 하면서 글케 배워왔어요. 개니끼 하자 하면은 남은 털 제거하고 때를 벗겨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니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 그러면 아까 털 제거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복을 만들면 그 복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복은 뭐 털을 제거 안 된 거를 뭐라고 하는 거 보다는 당시에는 기술이 그만큼 부족했던 거지. 그 털 제거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해도 조금씩 붙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소리에 좀 영향이 있다 일케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털이 완전 제거가 된 다음에 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 복은 인제 털복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나요?

털복? 글썸? 털복이라는 단어가 과연 있었을까요? 가죽에 뭐 그 제거 털이 못된 그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옛날에. 그런게 이제 털이 묻어 있으면 털복이다 이렇게 표시한 거 같은데요.

@ 무두질을 할 때, 무두질을 가죽을 올려놓는 그 뭐라고 하나요, 작업대? 그런 것들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인제 그 뭐 스키질 한다. 가죽을 안쪽을 깎아줄 때는 스키질 하자. 또 안쪽에 가죽 깎기 이전에 기름 제거 할 때 우라구찌 하자. 또 표면은 개니끼 하자. 또 무두질은 사실 따로 별도로 무두질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 그 용어가 있지요.

@ 선생님께서는 가죽 다루기와 나무 다루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죽다루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죽 다루기입니다. 나무 다루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가죽

다루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가죽다루기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스킨, 그다음에 무두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야만이 생명력 있는 북. 북은 소리가 생명이다. 그 생명력 있는 북을 만들려면은 스킨하고 무두질을 잘 해줘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 무두질이 기존에 있던 책에서와는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무두질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주시죠.

아니 근까 무두. 전체적인 북을 만드는 것을 무두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건 전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무두질, 우라구찌, 개니끼, 스킨 이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그 북인데, 종합적으로 그 무두질은 아니라는 거죠. 따로따로 무두질이 따로 있고, 스킨이 따로 있고, 우라구찌가 따로 있고, 개니끼가 따로 있습니다. 또 계분처리, 석회처리, 쌀겨처리 뭐 이런 거 등이 다 따로따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만이 완성품이 되는 거니까, 북을 다 만들면 제작이 잘 됐고, 안 됐고, 이게 완성품이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무두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4.4. 북 메우기 과정

@ 지금은 썰기북을 만들 때 보통 그 가죽과 북통을 엮을 때 통 엮기라고 하나요? 북통 엮기?

북통 엮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없고, 다만 북 메우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북 메우기 전수자, 북 메우기 뭐 뭐 문화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북 메우기죠. 북통에다가 가죽을 메우니까 북 메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썰기북 같은 경우에는 줄로 엮은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와서 변형이고, 이제 지금도 물론 가죽줄로 해서 하는데 소가죽을 재양친 가죽을 물에 불린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끈을 만들죠. 가죽 끈을. 만들어서 인제 사용하게 되는거죠.

@ 가죽끈 만드는 작업을 따로 가리키는 말은 없는지.

끈. 뭐 만들자. 줄 뜨자. 이렇게 얘기해요. 줄 떠. 줄 뜨자. 이렇게 얘기 합니다.

4.5. 제작 도구

@ 선생님 북통 만들 때, 북통 만들기 할 때 북통 만들기의 도구는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쓰였습니까?

도구는 인제 뭐 다양하게 있겠죠. 원형을 잡기 위해서는 살 잡는다. 카는데 살 잡기 이전에 그 빗쪽매본이라는게 있는데 인제 그 살을 잡아서 각도가 맞나 안 맞나 한 번 검토를 해보죠. 쪼각쪼각 한 쪼각씩. 그것이 검토를 할 때 빗쪽매본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 빗쪽매본의 각을 잡으러 딱 맞춰지면은 인제 원형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테를 원형 맞게 테를 놓고 그담에 인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가네라고 있는데. 다가네를 대서 그 바깥에 있는 테를 망치로 두드려 주죠. 그러면은 그 북이 그 통이 쪼아질 거 아닙니까? 단단히 쪼아져서 되면은 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정되면은 하루 이틀 그것이 인제 붙여진 것이 떨어, 떼 내는 거죠. 거 철테를. 떼 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통 깎는 칼로 깎아주고 대패질도 하고.

@ 통 깎는 칼은 통 깎는 칼이라고만 하십니까?

뭐 통 깎는 칼은 이제 뭐 무두칼보다는 조금 더 원형을 쥐가지고 이제 그 쪼금 더 원형을 가깝게 초생달 모양으로 인제 된 무두칼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형을 더 쥐서 하는 칼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 북통이 완성되면 광목이나 한지같은 거를 바릅니까?

물론 인제 그 혹시 인제 안에 여러 쪽을 붙이다 보니까 이음새에 어떤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안에 한지를 붙이기도 하고 광목은 위에 북의 종류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썰기북 같은 거는 구태여 광목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북에다가 인제 단청이라고 하죠. 단청. 그림. 그런 거를 그리기 위해서 광목을 저. 싸는,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광목을 싸죠.

@ 가죽을 다룰 때 가죽 다루기 할 때 가죽 다루기의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뭐 제일 처음 가죽 다루기에는 우라구찌 칼이 있고 개니끼 칼이 있는데 거 뭐 같이 사용한다 보면 되고, 또 우리가 인제 가죽 깎는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어른신네들에 배울 때는 스키질 한다. 그러는데 스키질 하기 이전에 그 가죽 깎는 칼, 스키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 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그 어려울 시절에는 삼판에 가 보면은 톱을 사용해서 양쪽에서 어 땡겨 가면서 나무를 삼판에서 자르죠? 그 그 톱. 그 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걸

구해가지고 여러 조각을 내서 갈아 줍니다. 잘 갈아서 기억자 모양으로 칼날을 만들어 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송곳을 만들어야 되겠죠. 송곳도 아무런 송곳이 아닙니다. 일종의 칼날을 잡아주는 어떤 슛돌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줄, 쇠줄이 있습니다. 쇠를 깎아주는 줄.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만들죠. 송곳을. 그것이 슛돌 역할을 하는 건데 가죽을 깎으면서 계속 송곳질을 해 주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넘어 볼 때는 송곳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칼날을 잡아 주구 갈아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뿐이 아닙니다. 대패집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패집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제 칼날을 고정시켜서 깎으면서 송곳으로 그 슛돌질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송곳으로 슛돌질을 하는 건가요?

그것이 그 가죽 깎아줄 때, 슛기질 할 때 송곳이 분명히 꺾가면서 그래서 깎습니다. 깎다가 7, 8차례 밀면은 이제 가죽이 잘 안 깎입니다. 날이 조금 닳았다 얘기죠? 그래서 송곳질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슛돌질. 칼날을 갈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 아까 보니까 여러 종류의 칼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집게들이 있던데 칼, 집게는 어떤 때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뭐 칼을 인제 가죽 그 재단할 때나 가죽을 북통에다 완전히 다 메웠을 때 뭐 우리는 구두칼이라고 하는데, 구두칼로 나무를 통에 가죽 메우기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통 썰기북 만드는 데에는 그런 구두칼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못북, 고장북, 노고, 뇌도, 영도, 삭고 막 이런 거 같은 경우의 북을 만들 때에는 그런 구두칼이 필요하지요.

4.6. 북의 채색과 장식

@ 그렇게 해서 이제 북통의 북을 완전히 메웠을 경우, 메운 후에 종류에 따라 단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단청을 하는 북과 단청을 하지 않는 북은 어떻게 나뉘어나요?

글썬 이제 단청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줄북 같은 경우 썰기북 같은 경우는 구태여 광목도 씨울 필요가 없는 거고 자연 바로 그대로 전통 썰기북 그대로 인제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광목을 발라서 단청을 하기 위해서 광목을 발라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종류에 따라서 연장이 더 필요한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백복이라는게 단청하지 않은 복이?

백복이라고 하는 것은 글썽 옛날에는 인제 여러 가지 물자가 없었겠죠. 지금은 와서는 물자 만능시대. 복도 보면은 기왕이면은 외적으로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색칠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백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술같은 것이 흔치 않았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나무 원 그대로의 깎아서 해 엮거든요? 그것을 백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백통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복 종류에 따라서 장식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고리를 단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까?

글썽요 인제. 장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비호이라라고 해야 될까? 또 신쭈뭇이라 해야 될까? 또 뭐 그러한 형식을 장식의 종류에 따라서 상평뭇도 있고 그런 차이이지.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은 비호뭇 박을 때 있고 신쭈뭇 박을 때 있고 상평뭇 박을 때 있고, 뭐 그런 차이예요.

@ 복을 만드시는 분들의 어떤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형의 어떤 그것이 장식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아주 오래 전에는 그냥 그 북통의 가죽을 메울 때 고정을 시켜 쥐야 되니까 못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망치질해서 못만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비호뭇, 신쭈뭇, 상평뭇 이러한 것 등등 장식용으로 박는 거죠. 모양새죠. 그건 하나의. 장식용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그런 작업을 할 때 못 치기, 못 박기 이런 말씀을 쓰셨나요?

이제 그렇죠. 못 치기? 그것보다는 우리는 못 박기 하자. 못 박는다. 못 박기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 하나의 복이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복을 만드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금기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심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복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인제 첫째는 금지사항이라는 것은 글썽요. 뭐 어떤 기술로써 이야기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죽을 뭐 선별을 잘 해야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인제 그 가죽 다루기라는 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통 방법은 역시 스기질 하는, 가죽을 깎아주는 그러한 전통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가장 좋은 북소리가 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인데 요즘에 와서는 대다수가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에 얘기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기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고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담 넘어서 뭐 배운 사람들이 북 제작해서 싸구려로 판다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거는 금기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5. 앞으로의 바람

@ 북을 제작하시는 제작방법이라든지 재료를 고르는 방법 그런 것들에 관련된 책은 혹시 선생님께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글썸. 책은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박균석 선생님께서 그 북에 관련된 책을 잠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무두질이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던데, 글썸 저는 그거를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거 배울 때 당시에 개니끼라는데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분처리, 된장처리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털이 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털을 다시 칼로 밀어주는 것을 우리는 개니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인제 가죽의 두께가 틀립니다. 머리부분 엉덩이부분 배부분 또 이런 옆구리 부분 등이 틀리기 때문에 두께가, 이것을 다시 깎아줘야 합니다. 똑같이 미리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을 또 스키질이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재단을 해서 넓은 합판에다 북의 크기의 종류에 따라서 재단을 해서 합판에다 못을 박아 말리죠. 말린 다음에 이것을 다시 물에다 담가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죽을 그때 당시에 무두질을 잘 해줘야 돼요. 무두질이라는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두질을 잘 해줌으로써 북소리가 좌우가 되지요. 또 하나가 빼먹었다면은 원래 소가죽을 물에다 24시간 담근 다음에 이미 계분처리, 된장처리, 오줌처리, 석회처리 하기 이전에 우라구찌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우라구찌라고 하는 것은 즉 가죽 안에 그 기름덩어리, 살덩어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제거를 해준 다음에 된장처리, 석회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구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것을 무두질이다. 무두질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 앞으로 선생님께서 그런 제작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설명하는 책을 쓰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아 당연히 있고요. 당연해야 돼. 바껴야 되고요. 저도 한 15년 전에 그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건 잘못 됐는데 얘기를 했는데, 이 작은 사람이 그 얘기를 잘못했다 얘기를 하면은 그 낭반에 대한 모독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겨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절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바껴야 된다. 또 널리 우리 역사가 흐름으로써 제대로 알려,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 앞으로 북 만들기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썄 이제 이 북도 만드는 분들이 담 너머로 배워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즉 그것은 판매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대중 만들어서 북이 아닌 이런 거등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팔아먹고 그러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대중화되다 보니까 북 소리도 모르고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사람들이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의 소리는 북소리가 생명이다. 소리가 생명인데 소리가 아닌 북들을 많이들 사서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정말로 북다운 북을 쳐야 되지 않느냐. 이래 얘기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진화를 해서 토대를 해서 북은 소리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찾아서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 요즘 값싼 수입 북들도 있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요?

일부는 중국서 북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소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 팔려요. 실제 저희들이 보면 너무 아쉽고 안타깝거든. 실지 쳐보면은 북소리가 전혀 아니고, 나무 뚜드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팔려요. 참 아쉽죠, 안타깝고. 그래도 그 북소리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북 모형만 갖춰졌으니까 갖다 치는 거야. 싸다해서 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아쉽죠.

@ 앞으로 선생님께서 바라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다른 어떤 또 도전하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 앞으로도 북소리가 더 좋아집니다. 바뀝니다. 2010년도쯤에는 다시 출소가 될 겁니다. 나름대로 과거보다 틀린 북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 바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대북에 관련된 기록갱신하기 위해서 도전할 것이고요. 그런 도전도 가죽이 한 쪽에 한 마리씩, 두 마리 더 이상 도전은 안 됩니다. 저

는 그 요즘에 영동 군청에서 하는 큰 6메다에 6메다짜리 북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쪽에다 전화한 적도 있어요. 북을 짜집기해서 북을 만들라고 보면은 대한민국 땅 덩어리만한 북도 만들 수가 있다. 그건 기록갱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북을 6메다에 6메다짜리를 한다는 것은 그 방대하기 때문에 그 가죽 팽창의 기술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되지도 않는 북을 막 만들고 있는데, 참 그런 것도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 쪽에 한 마리씩 두 마리 이상 더 들어가는 북은 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그런 큰 소를 찾아내서 일본에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북이 3메다 15짜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일본에서는 한 쪽에 한 마리씩 두 마리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잘 북소리나게 했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데 도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첫째는 가죽이 주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러한 큰 소를 어떤 송아지를 구해서 직접 키워서 북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려울 겁니다.

@ 북이 절대적으로 덧대기를 한다거나 짜집기를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북 소리가 좋지 않아져서 그런가요?

이게 꼭 짜집기를 해서라기보다는 이 지름이 6메다라는 것은 방대하는 얘기죠. 북으로서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가죽의 팽창을 많이 해줘야 이 북소리가 좋아지는 건데, 이 팽창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가죽이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 엄청난 걸 팽창을 해줄라고 들면은. 그러면 그 팽창을 과연 제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아무리 짜집기를 잘 했어도 그거는 북으로서의 소리가 생명인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북 메우기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음악적 표현은 물체를 두드리는 것이었다. 즉, 인간은 가락을 생각하기 이전에 리듬을 몸으로 익혔다. 우리말에서도 가락을 표현할 수 있는 부사는 없지만,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부사는 매우 많다. ‘둥둥’, ‘동동’과 같은 부사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다. ‘둥둥’과 ‘동동’은 한 악기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한국인이거나, 아니 외국인이거나 소리에 조금이라도 민감하다면, 이 부사어가 어떤 악기의 소리를 형상화한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북이다.

북은 한자로 ‘고(鼓)’와 ‘도(鼗)’이다. ‘고’는 북채로 북을 직접 때려 소리를 내는 것이고, ‘도’는 북통에 끈을 매달아 놓고 흔들어 소리를 내는 것으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는 매우 희귀하다. 하지만, 고는 여전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사물놀이 등에 쓰이는 악기로 남아있다. 입말은 ‘도’와 ‘고’보다 ‘북’이 훨씬 일반적이다. 북의 표기에 관한 기록은 『석보상절』에서 ‘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북은 ‘만들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북 메우다’ 즉, ‘북 메우기’로 표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북 메우기’의 ‘메우다’는 ‘북, 장구 따위를 천이나 가죽을 씌워서 만들다’고 정의하였다. 메우기는 북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가죽이나 천을 북통에 씌우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 메우기’ 장인은 북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을 만드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경중심의 문화를 갖고 살아 왔다. 이런 이유로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띤 농악이 발전을 해왔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예로부터 ‘웃다리’라는 독특한 농악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농악에서 쓰이는 악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북이다. 그리고 농악을 실내음악화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사물놀이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북이다. 북은 이처럼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흥겨움을 더하는 악기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북의 쓰임은 곧 ‘북 메우기’ 장인의 역할과 필요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오늘날 가죽을 다루는 허드렛일로 치부되고 있는 ‘북 메우기’ 기술은 과거 우리 민족 ‘흥’과 ‘신명’의 도화선이었다.

2. 재료

‘북 메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나무를 다루는 일’과 ‘가죽을 다루는 일’인데, 좋은 나무를 선별하여 북의 종류와 쓰임에 맞게 나무를 잘 다루는 것과 좋은 가죽을 구해 가죽의 질을 높이는 가죽 다루는 일은 ‘북 메우기’를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북 메우기’에서 나무와 가죽은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재료이다. 기록에는 쇠로 된 북도 있다고 하나, 오늘날 북이라 일컫는 악기는 나무와 가죽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은 또한 종류에 따라 장식과 단청을 하기도 하는데, 장식을 하는 북에는 별도로 장식에 필요한 재료들(고리, 장식못)이 쓰이기도 하며, 북을 단청할 때에는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한다. 그리고 큰북의 경우 북틀을 만들어 북틀 위에 북을 올려놓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북틀을 만들 때에도 나무를 이용한다. 북틀도 단청을 하여 멋을 더하게 된다.

2.1. 주재료

2.1.1. 나무

북통을 만드는 나무에는 소나무⁵⁾, 오동나무⁶⁾, 피나무⁷⁾, 박달나무⁸⁾, 버드나무⁹⁾ 등이 사용된다. 작은 북일 경우 주로 오동나무를 사용한다. 오동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북을 만들어 치면 맑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 큰 북을 만드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개 오동나무로는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통북을 만든다. 큰북을 만드는 데에는 소나무를 사용한다. 소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질겨 북 가죽을 메울 때 늘

5) 소나무의 여러 종류 가운데서 육송과 홍송이 주로 쓰였다.

6) 현삼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넓은 심장 모양이다. 5~6월에 보라색 꽃이 원추(圓錐) 화서로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삭과(蒴果)로 10월에 익는다. 재목은 가볍고 고우며 휘거나 트지 않아 거문고, 장롱, 나막신을 만들고 정원수로 재배한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남부 지방의 인가 근처에 분포한다.

7) 피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 모양이다. 6월에 노란색을 띤 흰색 꽃이 취산(聚繖) 화서로 피고 열매는 공 모양의 견과(堅果)로 9~10월에 익는다. 재목은 기구재, 나무껍질은 섬유용, 어린 꽃봉오리는 말려서 차로 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8) 자작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3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끝이 뾰족한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에는 작은 톱니가 있다. 5~6월에 갈색의 단성화(單性花)가 수상(穗狀) 화서로 피고 열매는 작은 견과(堅果)로 9월에 익는다. 나무질이 단단하여 건축재나 가구재로 쓴다. 산 중턱 이하의 깊은 숲 속에 나는데 한국 전역과 일본, 만주, 우수리 강 등지에 분포한다.

9) 버드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가늘고 긴 가지가 축축 늘어진다. 겨울눈은 붉은빛이 돌며 털이 있다. 잎은 긴 타원형이며 잔톱니가 있다. 4월 무렵에 어두운 자주색 꽃이 미상(尾狀) 화서로 잎보다 먼저 핀다. 열매는 달걀 모양의 삭과(蒴果)로 ‘버들개지’라 하며 4~5월에 익으면 두 개로 갈라져서 흰 솜털이 있는 씨가 바람에 날려 흩어진다. 세공재(細工材)로 쓰고 가로수, 풍치목으로 많이 재배한다. 개울가나 들의 습지에 잘 자라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어난 가죽의 하중을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조 후에 나무의 뒤틀림이 적어 북의 변형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다. 소나무로는 같은 크기의 판자를 여러 쪽 대어 만드는 쪽북을 제작한다. 보통 대북을 만드는 소나무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작은 북을 만드는 오동나무는 6개월 정도 건조를 하면 북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피나무는 재질이 부드러워 작은 북을 만들기에 적합하며 박달나무나 버드나무도 작은 북을 만들기에 적합하나,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 ⇒ 이제 북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게 제작을 하는 거죠. 작은 북일 경우에는 주로 {오동나무}를 쓰고, 이제 우리가 고장북이다 시조북이다 판소리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북통에 나무로 때려주고 치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로 써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을 만들 때도 역시 {소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1.2. 가죽

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목재를 선별하여 울림통(북통)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가죽을 선택하고 가죽을 잘 다루어 북을 메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제대로 가죽을 선별하지 못하고, 설령 좋은 가죽을 선별하였더라도 제대로 가죽을 다루지 못할 경우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가죽으로 북을 메웠느냐에 따라 그 북의 가치는 달라진다.

가죽은 주로 3~5년 된 황소 가죽을 사용한다. 또한 황소 가죽 중에서도 초봄에 잡은 가죽을 최상품으로 친다. 황소 가죽은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북을 메우기에 적당하다. 암소의 가죽이나 거세한 소의 가죽은 황소 가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죽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소리도 좋지 못할뿐더러 가죽이 쉽게 상하고 찢어질 염려가 있어 북을 메울 때 사용을 꺼린다.

거세하지 않은 3~5년 된 황소의 가죽은 예전에 매우 귀했다. 북 메우는 장인들은 대부분 가죽을 대량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한 장씩 어렵게 구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렵게 구한 가죽 한 장을 가지고 근근이 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가죽을 구할 수 없을 때 황소 가죽을 대신하여 개 가죽, 노루 가죽, 염소 가죽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장구와 같은 경우 가죽의 두께가 비교적 얇아도 괜찮다. 그리고 가죽의 크기가 작아도 제작이 가능하기에 주로 개 가죽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물소의 가죽으로도 북을 메울 수 있는 가죽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보자는 이야기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제보자는 현재 거세하지 않은 3~5년 된 황소의 가죽만을 이용하여 북 메우기를 하고 있고, 다른 가죽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제보자의 공방 한쪽에는 북을 메울 가죽들이 쌓여 있었다.

- ⇒ 인제 거세한 소나 암소 가죽은 북으로서는 가죽이 너무 얇아요. 즉 얇다는 것은 북을 만들었을 때 둥둥 소리가 아닌, 땡땡 소리가 나죠. 그서 북은 황소, 거세하지 않은 황소로 제작을 해야만 이 북소리가 북다운 생명력 있는 북소리가 나는 거죠.

2.2. 부재료

2.2.1. 아교풀

북은 북통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된다. 원래의 나무를 깎아 통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나무를 잘라 쪽을 만들어 쪽끼리 이어 붙이는 방식이 있다. 접착제는 나무의 쪽을 이어 붙일 때 필요하다. 쪽을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강한 접착력을 필요로 한다. 예전에는 접착제를 직접 만들었다.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가죽의 안쪽에 붙어있는 ‘수구레’와 기름기를 제거해야 한다. 수구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쇠가죽에서 벗겨낸 질긴 고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 수구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작업 과정에서 기름덩어리가 엉겨 붙어 제거되기 마련이다. 즉 수구레는 쇠가죽에서 벗겨낸 질긴 고기나 기름덩어리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사진 3] 수구레

지금은 물자가 풍부해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제거한 수구레와 기름덩어리를 깨끗이 세척하여 연탄불에 끓여서 녹여 아교풀¹⁰⁾을 만들어 접착제로 사용하였다. 가죽 한장에서 나오는 수구레와 기름덩어리는 무척 많다. 이를 가지고 아교풀을 만들기도 했고, 떡기도 했다. 모두 물자가 부족했던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아교풀을 만들 때에는 연탄불과 같은 은근한 불에 수구레와 기름덩어리를 하루 정도

10) 짐승의 가죽, 힘줄, 뼈 따위를 진하게 고아서 굳힌 끈끈한 것. 풀로도 쓰고 지혈제로도 쓴다.

끓여야 한다. 그러면 아교풀이 완성된다. 쪽을 이어 붙일 때, 아교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찹쌀풀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찹쌀풀은 찹쌀을 망치로 으깨 만들었다. 망치로 찹쌀풀을 으깨면 찰기가 생겨 끈적거리는데, 이 찹쌀풀을 쪽의 모서리에 발라 쪽과 쪽을 이어 붙이는데 사용하였다.

대부분 쪽과 쪽을 이어 붙여 만드는 쪽북이 북 메우기의 일반적인 제작 방식이므로 접착력이 우수한 양질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쪽을 이어 붙이는 것이 좋은 북통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은 경우에 따라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방식의 것은 아니다.

⇒ 가죽을 깎아 준 찌꺼기가 인제 {수구레}라고 하는데 그 수구레를 인제 그 깨끗이 물에 빨아서 연탄불에 하루 이틀 인제 끓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녹습니다. 녹으면은 그게 {아교}가 되거든요?

3. ‘북 메우기’ 도구

3.1. 나무 다루기 도구

나무 다루기 과정은 특별할 것이 없다. 그저 일반적인 목공일과 유사하다. 그런 이유로 나무 다루기에서 필요한 도구도 일반적인 목공일의 도구인 ‘톱’, ‘대패’, ‘망치’, ‘사포’, 등이다. 톱으로는 나무를 잘라 쪽을 만들고, 대패는 거친 표면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며, 사포는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하기 위해 사용한다. 정확한 치수로 나무를 잘라야 북통을 짤 때 쪽과 쪽이 만나는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는다. 또한 거친 표면을 정리하고 부드럽게 정돈하여야 광목을 바르고 단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

망치는 쇠망치와 고무망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큰북을 만들 때에는 큰 망치를 사용한다. 주로 북통의 모양새를 바로잡기 위해 완성된 북통을 내리치며 가늠한다.



[사진 4] 줄톱



[사진 5] 대패



[사진 6] 망치



[사진 7] 사포



[사진 8] 고무망치

3.1.1. 빗쪽매본

‘빗쪽매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형태소 분석 또한 쉽지 않다. 제 보자는 ‘빗쪽매본’을 발화할 때 휴지를 두지 않고 발화하였다. 이런 이유로 원형을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다만 ‘빗살’에서의 ‘빗’, ‘본을 뜨다’에서의 ‘본’ 정도는 언어적 직관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빗쪽매본’은 ‘빗’+‘쪽매’+‘본’ 정도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빗쪽매본’은 쪽북을 제작할 때 쪽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이다. 북은 원형의 통으로 만든다. 원형의 통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북통은 직선이 아닌 곡선을 띠게 된다. 북통의 구성체인 쪽 또한 곡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쪽을 붙였을 때 쪽과 쪽의 이음새가 어긋나거나 벌어져 북통의 모양이 맞지 않게 만들어질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북통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유로 쪽 하나하나를 ‘빗쪽매본’에 견주어 쪽의 곡선과 각이 올바른지를 맞추어 본다. ‘빗쪽매본’과 어긋남이 있다면, 다시금 나무를 다듬어야 한다. 즉, ‘빗쪽매본’은 톱으로 자른 나무의 쪽이 북통을 제작하기에 적합한지를 가늠해 보는 도구이며, ‘빗쪽매본’과의 차이가 없는 쪽을 이용하여 북통을 만들었을 때 북통의 원형 각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사진 9] 빗쪽매본

⇒ 그 {빗쪽매본}이라는게 있는데 인제 그 살을 잡아서 각도가 맞나 안 맞나 한 번 검토를 해보죠. 쪼각쪼각 한 쪼각씩. 그것이 검토를 할 때 빗쪽매본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 {빗쪽매본}의 각을 잡으러 딱 맞춰지면은 인제 원형을 짜게 되는 거죠.

3.1.2. 로꼬로칼, 끌

‘로꼬로칼’을 제보자는 북통을 파는데 사용하는 칼이라고 하였다. 북통을 파기 위해 칼날의 모양은 반원의 초승달 모양이라고 하였다. 제보자에게 ‘로꼬로칼’의 이름에 대해서 물었지만, 제보자 역시 이름에 대해서는 일본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었다. 다만, ‘북통 파기 칼’, ‘통 깎기 칼’ 정도로 순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통을 파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크기가 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각칼에서 둥근칼을 연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0] 로꼬로칼

끌은 나무를 다룰 때 망치로 내려 쳐 나무의 겉면을 깎고 다듬기 위해 사용한다.



[사진 11] 끌

⇒ 때 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통 깎는 칼}로 깎아주고 대패질도 하고.

3.1.3. 금긋기자

‘금긋기자’는 나무를 쪽을 낼 때 연필 따위로 금을 그어 쪽을 낼 나무에 본을 뜨는 도구로 사용한다. ‘금긋기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쪽을 만들 나무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긋기자’를 사용한다.



[사진 12] 금긋기자

쪽을 낼 나무의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금긋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금긋기자’를 사용한다.



[사진 13] 금긋기자

쪽을 낼 나무의 면에 ‘금긋기자’를 사용하여 금을 긋게 되면, 원하는 크기의 쪽을 얻기 위해 보다 쉬운 방법으로 금을 그어 표시할 수 있다. 이후 표시된 금을 따라 톱으로 잘라 내면 쪽을 얻을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한 요즘도 곡선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긋기자’를 이용해 금을 그은 후 톱질을 한다.

3.1.4. 직각자

직각자는 ‘ㄱ’모양의 쇠붙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자이다. 주로 직각을 잴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북 메우기를 할 때에는 북통과 북면의 직각이 잘 맞는지 가늠하기 위해 사용한다. 주로 쇠를 이용해 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곱자자라는 말도 사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직각자와 곱자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보자는 직각자를 ‘격자’라고도 하였으나, 이는 자의 모양이 ‘ㄱ’임으로 말미암아 ‘기역자’로 발음하다가 줄어 ‘격자’가 되었을 것이다.



[사진 14] 기역자

3.2. 가죽 다루기 도구

‘북 메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가죽을 다루는 일이다. 가죽을 잘 다루느냐 다루지 못하느냐에 따라 북의 소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북통을 만들거나 단청을 하는 과정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북 메우기를 하기 위한 양질의 가죽을 얻기 위해 가죽을 제대로 다루는 작업은 무척이나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가죽을 다루는 도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제보자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직접 도구를 만들고, 고치며 가죽 다루기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죽 깎는 칼과 송곳은 만들기가 무척 어려워 오랜 시간 가죽을 다루어 보지 못한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3.2.1. 가죽 깎는 칼과 송곳

‘가죽 깎는 칼’은 말 그대로 가죽을 깎는 칼이다. 쇠가죽은 소의 부위에 따라 가죽의 두께가 다르다. 가죽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가죽을 제대로 깎지 않고 북을 메우게 되면, 북 소리가 좋을 수 없다. 그러므로 쇠가죽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가죽을 깎는다. 이때 필요한 도구가 가죽 깎는 칼이다. 가죽 깎기를 제보자는 ‘스기질’이라고 하였다.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던 암울했던 시절 ‘북 메우기’와 관련한 말들은 현재 상당수가 사라져 버렸다. 제보자 역시 어른들에게서 기술을 배울 때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된 용어를 전수받았고, 일본어가 우리말을 대신해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는 가죽을 깎는 일이 대패질을 하는 작업과 유사하므로 가죽 깎기 칼을 ‘스기칼’ 혹은 ‘스기대패’라고도 하였다.



[사진 15] 가죽 깎는 칼과 송곳

그러나 가죽 깎는 칼의 모양은 대패를 닮았다. 그러므로 칼보다는 대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죽 깎는 칼은 항상 송곳과 함께 해야 한다. 송곳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송곳이 아닌 좀 특수한 송곳을 이야기한다. 가죽 깎는 칼은 칼날이 ‘ㄱ’ 모양이어서 가죽을 여러 차례 깎다 보면 미세하게 날이 무뎠다. 제보자는 7~8번 정도 날을 가죽에 대고 밀면 날이 무뎠다고 하였다. 날이 무뎠으면, 가죽도 잘 깎이지 않을뿐더러 가죽면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가죽 깎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자주 송곳으로 가죽 깎기 칼의 칼날을 솟돌과 같은 역할로 갈아줘야 한다. 또한 가죽을 깎다 보면 가죽 깎기 칼의 틈으로 찌꺼기들이 들어가 작업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송곳으로 틈새에 들어간 찌꺼기를 빼내는 역할도 한다. 즉, 송곳으로 칼날을 갈아주기도 하고 틈새에 들어간 찌꺼기를 제거하기도 한다.



[사진 16] 송곳

⇒ 우리가 인저 가죽 깎는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어른신네들에 배울 때는 {스기질} 한다. 그러는데 {스기질} 하기 이전에 그 {가죽 깎는 칼}, {스기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3.2.2. 무두칼

‘무두칼’은 무두질을 할 때 쓰는 칼이다. ‘무두질’은 가죽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다. ‘무두칼’로 ‘무두질’을 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밟아야 한다. 가죽을 밟은 후 ‘무두칼’로 ‘무두질’을 계속 반복한다. ‘무두칼’은 칼날이 날카롭지 않으며, 칼의 형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두칼’역시 제보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두칼’이라는 용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무뎡대’라 하여 가죽을 무두질할 때 쓰는, 가죽을 훑어 기름을 빼는 칼로 설명하고 있다. 제보

자는 ‘무두칼’로 이야기했고, ‘무뚝대’는 무두질을 할 때 사용하는 받침대로 설명하였다.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진 17] 무두칼

⇒ 어 무두칼. 작은 무두칼이 있습니다.

3.2.3. 우라구찌칼/개니끼칼

가죽의 안쪽과 바깥쪽을 손질하는 도구이다. 정련된 쇠붙이의 양쪽 끝에 나무로 된 손잡이를 박아 가죽의 표면에 칼날을 대고 밀어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하였다. 칼날의 모양은 약간 곡선이 쳐 있어 원형의 작업대에 가죽을 올려놓고 작업을 할 때 가죽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가죽의 안쪽을 손질하는 작업을 ‘우라구찌’라고 하며, 가죽의 바깥쪽을 손질하는 작업을 ‘개니끼’라고 한다. 모두 일본어로 순화해야 할 것들이다. ‘우라구찌칼’과 ‘개니끼칼’은 어떤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 도구는 같은 것이지만, 안쪽 가죽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는 ‘우라구찌칼’이라고 부르며, 바깥쪽 가죽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는 ‘개니끼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날이 아주 날카롭지는 않다. 날이 날카로울 경우 가죽 표면이 상하기 때문에 솟돌에 적당히 갈아 놓는다.

제보자는 ‘우라구찌칼’과 ‘개니끼칼’도 직접 만든다고 하였다. 만드는 과정을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북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보자가 현재 사용하는 ‘우라구찌칼’과 ‘개니끼칼’은 만든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10년이 넘었지만, 자신이 만든 도구로 자신이 좋아하는 북 만들기를 하고 있어서 늘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장인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 18] 우라구씨칼/개니끼칼

⇒ 그거 뭐 제일 처음 가죽 다루기에는 {우라구씨칼}이 있고 {개니끼칼}이 있는데 거 뭐 같이 사용한다 보면 되고,

3.2.4. 개비끼

북통의 마구리¹¹⁾에 가죽을 씌울 때 북통 마구리 밖으로 여분의 가죽이 나오면, 그 여분의 가죽을 정리하기 위해 가죽 표면에 못으로 미세한 금을 긋기 위해 만든 도구가 ‘개비끼’이다. ‘개비끼’에는 못이 달려 있어 ‘개비끼’를 북통 주변에 돌리면 일정한 크기의 흠집으로 생긴 금이 그어지는 것이다. 컴퍼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겠다. ‘개비끼’ 역시 우리의 고유한 말이 아니다. 즉 순화해야할 대상어이다.



[사진 19] 개비끼



[사진 20] 개비끼질

11) 길쭉한 토막, 상자, 구덩이 따위의 양쪽 머리 면/길쭉한 물건의 양 끝에 대는 것.

3.2.5. 태고

‘태고’는 나무로 만든 큰 원형의 통이 있는 도구이다. 태고의 모양을 보고 커다란 북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태고(太鼓)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무두질’을 할 때 과거는 일일이 가죽을 밟고 무두질을 하는 번거롭고 고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태고’를 이용해 보다 손쉽고 빠르게 무두질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전통 방식의 무두질보다 태고를 이용하면 가죽이 더욱 부드러워 진다고 하였다. 또한 가죽을 세척하는 데에도 태고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진 21] 태고

⇒ {태고}. 거기다 원형 나무로 만든 큰 원형통이 있는데 거기다 넣고 돌려주면은 가죽이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이상으로 제작 도구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작 도구 |
|-----------|---|
| 나무 다루기 도구 | 줄톱, 대패, 망치, 톱, 사포, 빗쪽매본, 금긋기자, 고무망치, 끌, 기억자 |
| 가죽 다루기 도구 | 가죽 깎는 칼, 송곳, 무두칼, 우라구찌칼, 개니끼칼, 개비끼, 태고 |

4. 북 메우기 과정

4.1. 나무 다루기

‘북 메우기’의 과정에서 북통을 만드는 따위와 관련하여 나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작업을 통틀어 ‘나무 다루기’라고 한다. ‘나무 다루기’에 앞서 진행해야 할 것은 좋은 목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목재를 잘 골라야 그만큼 북의 공명도 좋아지고 북의 변형도 덜하기 때문이다. 통북과 쪽북을 만드는 것에 따라 나무 다루기도 달라진다.

북의 종류에 따라 북통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나무 다루기’는 북통 자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나무를 다루는 일이다. 제보자는 ‘나무 다루기’ 과정을 ‘가죽 다루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가죽만으로 하나의 북을 완성할 수 없듯이 나무를 다루는 일도 가죽 다루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죽 다루기입니다. (나무 다루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4.1.1. 쪽 내다

나무에 직접 북통을 파서 제작하는 통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북은 나무를 쪽 내어 그 쪽을 이어 붙여 북통을 제작한다. 큰 북을 만들 때에는 북의 크기에 비례하여 큰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나무를 구하기 힘들어 큰북 등을 메울 때에는 쪽을 이어 붙여 북통을 제작한다. 쪽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금긋기자’를 나무에 대고 펜으로 금을 그어 표시를 해둔다.



[사진 22] 쪽 그리기

이후 금을 따라 톱으로 나무를 잘라 쪽을 만든다. 만들어진 쪽은 다음과 같다.



[사진 23] 쪽

⇒ 근데 뭐 그 쪽북이라고 하고 있고 통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쪽북은 {쪽을 내서} 인제 그것은 즉 재료가 없죠. 큰북은 역시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쪽을 내야} 되겠죠.

4.1.2. 북통 짜다

북통을 만드는 것을 ‘북통 짜다’라고 한다. 북통은 북의 통을 의미하므로 통북과 쪽북의 구성체로서 모두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북통 짜다’에서 쪽북의 북통을 짜는 것은 쪽을 이어 붙여 북통을 제작하는 것이고, 통북의 북통을 짜는 것은 나무를 파내어 북통을 제작하는 것을 이른다.



[사진 24] 완성된 북통

⇒ 뭐 예전에는 북통 만들려면 북통 짬다. 북통을 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4.1.3. 살 잡다/곡선 잡다

쪽 마다의 수치가 달라 각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과거에는 짜구(자귀)질을 하여 각을 맞추었다. 또는 ‘다가네’를 이용하여 망치로 ‘다가네’를 때려 마름질을 하였다. ‘북 메우기’에서 이러한 과정을 이르는 말로 ‘살 잡다’, ‘곡선 잡다’ 두 가지를 모두 쓴다. ‘잡다’는 ‘바로잡다’를 줄여 쓴 말이다.

- ⇒ 인제 그 원형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인제 그 원형을 그려 논 다음에 곡선을 잡는거죠. {곡선을 잡는다}. 아니면 {살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살을 잡어서} 이제 그 원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4.1.4. 북통 다듬기

북통을 완성했더라도 쪽북의 경우 여러 쪽을 이어 붙였기 때문에 북통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또한 쪽을 낼 때에도 북의 표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북통의 표면이 거칠다. 그럴 경우 대패질을 해서 북통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데, 이것을 ‘북통 다듬기’라고 한다. 현재는 수고스러움을 덜하기 위해 전자대패를 이용하기도 한다.

‘북통 다듬기’를 하는 이유는 북통의 겉에 광목을 바르기 위해서다. 광목을 바르고 단청을 하기 위해서는 북통의 겉면이 잘 정돈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통 다듬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통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시각적으로도 깨끗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 25] 북통 다듬기

4.1.5. 쫄대 넣기와 서 파기

완성된 북통 안쪽에는 ‘쫄대’를 만들어 넣는다. 북통 크기에 따라 ‘쫄대’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 ‘쫄대’는 쪽북에만 넣는데, 이어 붙인 쪽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 26] 쫄대

통북의 경우는 ‘쫄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북통을 팔 때 미리 ‘서’를 판다. ‘서’는 북통 안쪽에 돌출되게 판 부분으로 쪽북의 ‘쫄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진 27] 서

- ⇒ 쪽북일 때에는 여러 쪽을 붙이다 보니까 안에다가 {쫄대}를 너주게 되는 거죠. 너주게 되면은 서로 이어졌던 부분이 더 교정도 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인제 {쫄대}를 넣는 거죠.
- ⇒ 원통같은 경우는 인제 북통을 그 깎아 줄 때에 안에다가 {서}라고 허죠. {서}.

4.1.6. 광목 바르기, 한지 바르기

쪽북의 경우 여러 쪽을 붙이다 보면 이음새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북통의 안쪽에 한지를 바르면 이음새의 틈새를 막아주어 북이 훨씬 견고해진다. 이를 ‘한지 바르기’라고 한다. 그리고 ‘광목 바르기’를 하는 이유는 북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북에 단청을 할 때 단청이 북에 잘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목을 북의 겉면에 바른다. 또한 채색을 하기 위해서도 광목을 바른다. 광목과 한지를 바를 때에는 찻쌀풀을 쑤어서 바른다.



[사진 28] 광목 바른 북

일차적으로 광목을 바른 후 고리와 장식못을 박고 채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북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진 29] 광목 바른 북가 채색 북

4.2. 가죽 다루기

‘가죽 다루기’는 ‘북 메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좋은 가죽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죽 다루기’는 구해진 가죽을 얼마나 ‘북 메우기’에 적당하게 잘 다루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보자는 4, 5년 된 황소의 가죽을 구해 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진정한 ‘가죽 다루기’가 시작된다고 하였고, ‘나무 다루기’보다는 ‘가죽 다루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물에 담가 주면은 하루 이틀 담가 주면은 그 염장처리 소금기가 인제 빠지게 되죠. 빠진 다음에 이것은 인제 가죽이 다루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죽 다루기}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죽 다루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2.1. 염장 처리/염장 치다

소를 도축하여 바로 가죽을 얻을 경우 가죽에는 핏기가 남아 있다. 또한 가죽은 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핏기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염장 처리는 한두 달 정도 하며 핏기가 가시고 상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여 ‘북 메우기’ 장인에게 가는 것이다. 이를 ‘염장 처리’라고도 하며, ‘염장 치다’라는 말도 사용한다.



[사진 30] 염장 친 가죽

- ⇒ 일단 뭐 가죽은 절대적 {염장 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염장 처리}를 해야 되요.
- ⇒ {염장 친다}. 라는 것은 인제 아까도 뭐 얘기 했듯이 소를 잡으면 바로 가죽이 상하니까 상하지 안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가죽의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장을 친다}.

염장을 친 가죽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소금기를 빼기 위해 세척을 해야한다. 세척은 태고에 넣고 세척을 하거나, 직접 통에 넣고 세척을 하기도 한다. 가죽의 양이

많을 때에는 태고를 사용하고, 가죽의 양이 비교적 적을 때에는 통에 넣어 세척을 한다.



[사진 31] 가죽 세척

4.2.2. 수구레 제거

앞서 쇠가죽에 붙은 질긴 고기와 기름덩어리를 ‘수구레’라고 하였다. 도축을 하여 가죽을 벗긴 소의 안쪽 가죽 면에는 당연히 불필요한 것들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제거하여야 양질의 가죽을 얻는 본격적인 과정에 돌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구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바닥에 펼쳐 놓은 후 칼을 가지고 직접 수구레를 잘라낸다. 수구레를 제거할 때 기름기를 너무 많이 떼어내면 가죽이 너무 얇아져 복을 메울 수 없게 된다. 적당한 두께를 유지해야만 가죽이 찢어지지 않아 복을 메울 수 있는 가죽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된다.



[사진 32] 수구레 제거할 가죽



[사진 33] 수구레 제거



[사진 34] 수구레 제거

4.2.3. 우라구찌

가죽에 붙어 있던 수구레를 칼로 제거해도 완벽하게 수구레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초승달 모양의 독특한 ‘우라구찌칼’을 이용해 안쪽 가죽에 남아 있는 기름덩어리 등을 제거하고 가죽을 깎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라구찌’라고 한다. 제보자는 ‘우라구찌’라는 일본어를 대신해 ‘안 가죽 깎기’란 말로 순화하기를 바랐다. 안 가죽을 깎을 때에도 수구레를 제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얇게 가죽을 깎지 말아야 한다. 안 가죽을 처음 다루는 사람은 가죽의 두께를 가늠할 수 없어 가죽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사진 35] 안 가죽 깎기 1



[사진 36] 안 가죽 깎기 2



[사진 37] 안 가죽 깎기 3

- ⇒ {우라구찌}라고 하는 것은 즉 가죽 안에 그 기름덩어리, 살덩어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제거를 해준 다음에 된장처리, 석회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구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4.2.4. 털 제거(재, 계분, 된장, 오줌, 석회, 쌀겨) 처리

북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죽에 붙어 있는 털을 제대로 제거해야만 한다. 도축한 소의 가죽에 붙어 있는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처리를 해야만 손쉽게 털을 제거할 수 있다. 과거에는 털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가죽을 재에 담가 두는 ‘재 처리’가 있었다. 또한 닭의 똥에 담가 두는 ‘계분 처리’, 오줌 등에 담가 두는 ‘오줌 처리’를 하였다. 물론 된장에 담가두면 ‘된장 처리’라고도 하였다.

전통 방식의 털 제거는 가죽에 손상이 덜 가는 방법이었지만, 털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였다. 그런 이유로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북을 메우기도 하였다. 현재는 석회를 이용한 ‘석회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 방식의 처리보다 더욱 쉽게 털을 제거할 수 있다. 우선 석회를 물에 잘 개어 안 가죽에 발라둔 후 시간이 흐르면 털을 가죽에서 뽑는다. 지금은 뽑은 털을 그냥 버리지만, 예전에는 전부 모아서 붓을 만드는 공장에 팔았다고 한다. 석회처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석회를 물에 희석하여 적당한 농도를 맞춘다. 그런 다음 가죽을 펼치고 가죽에 희석한 석회를 뿌린다. 이때 털이 있는 가죽 면에 석회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수구레가 있는 가죽 면에 석회를 뿌려야 한다. 석회를 뿌린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죽을 뒤집어 손으로 직접 털을 뽑기 시작한다. 석회를 뿌려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털이 잘 제거가 되지 않고, 석회를 뿌려둔 상태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가죽이 상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지켜야만 한다.



[사진 38] 석회 희석



[사진 39] 석회 뿌리기



[사진 40] 석회 처리 후 털 제거

-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재 처리}, {석회 처리}, {계분 처리}, {오줌 처리}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재료가 없을 때에 {재 처리}, {계분 처리}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족의 재앙치기가 있죠.
- ⇒ 아까 얘기했던 {계분 처리}, {된장 처리}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털이 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 ⇒ 또 {계분 처리}, {석회 처리}, {쌀겨 처리} 뭐 이런 거 등이 다 따로따로 구별이 돼 있어요.

4.2.5. 개니끼

털을 제거하기 위해 ‘재처리’, ‘오줌처리’, ‘된장처리’ 등을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털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개니끼’는 아직 제거가 덜 된 털을 제거하고 가족에 남아 있는 때를 벗기기 위해 가족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대패처럼 날질을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여러 작업을 하다보면, 가

죽에 때가 생기는데, 가죽을 깨끗하게 처리해야만 보기 좋은 북을 완성할 수 있듯이, 가죽 다루기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개니끼’작업을 잘 해야만 북을 메울 좋은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개니끼’ 역시 일본어의 어형을 분석할 수 없는 말이다. ‘바깥가죽 다루기’ 정도의 말로 순화해야 할 대상어이다.

⇒ {개니끼} 하자 하면은 남은 털 제거하고 때를 벗겨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니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진 41] 개니끼 1



[사진 42] 개니끼 2



[사진 43] 개니끼한 가죽

4.2.6. 가죽 깎기(스기질)

가죽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수구레를 제거하는 작업도 끝이 나고, 가죽에 남아 있던

털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죽의 때를 벗기는 작업도 끝이 나면 이제 가죽을 깎아야 한다. 소는 부위에 따라서 가죽의 두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죽 깎기’ 전에 진행했던 여러 작업 과정 속에서 가죽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여 가죽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에 가죽을 깎아야만 한다. 제보자는 ‘가죽 깎기’ 작업을 일컫는 말을 ‘스기질’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순화가 필요한 말이다.



[사진 44] 가죽 깎기

가죽을 깎을 때는 작업대 위에 가죽을 올려놓고 ‘스기칼’과 송곳을 이용해 보다 정교하게 가죽의 두께를 맞춰나가며 가죽을 깎는다. 가죽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죽 깎기’는 무척이나 중요하며 북의 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인의 숙련된 가죽 깎는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 과정이다. 가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양손은 스기칼의 가장자리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밀면 날에 따라 가죽이 깎인다.



[사진 45] 송곳으로 정리

가죽 깎기(스기질)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죽 깎기 칼(스기칼)’을 얼마나 잘 정련하느냐이다. 스기칼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리 또한 중요하다. 제보자는 스기질을 하는 과정에서 칼날을 솥돌에 갈고 다시 스기질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만 좋은 가죽을 얻을 수 있으며, 북의 소리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사소한 작업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진 46] 날 갈기

- ⇒ 우리로서는 인제 그 뭐 {스기질} 한다. 가죽을 안쪽을 깎아줄 때는 {스기질} 하자. 또 안쪽에 {가죽 깎기} 이전에 기름 제거 할 때 우라구찌 하자.

4.2.7. 타래하다

깎아 준 가죽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작업을 ‘타래’라고 하며, 그러한 과정을 ‘타래하다’라고 부른다. 가죽의 크기에 따라 세척을 하는 세척통의 크기에도 차이가 난다. 무두질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태고에 넣고 타래를 하면 보다 용이하게 타래를 할 수 있다.

- ⇒ 가죽 깎어 준 다음에 일단 가죽을 깨끗이 세척을 해주어야 되니까 {타래한다}. 타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도 뭐 타래하자. 이렇게 하니까요.



[사진 47] 타래하기

4.2.8. 유안(硫安) 처리

‘유안¹²⁾’은 다른 말로 ‘황산암모늄’이라고 한다. 질소비료의 한 성분으로 황산에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만든다. ‘유안 처리’는 이제 ‘황산암모늄’을 탄 물에 가죽을 담가서 가죽을 무르게 하여 부드럽게 하기 위한 처리 방식이나, ‘북 메우기’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며 현대에 들어와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화학약품을 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과거에는 재 처리도 하고, 또 석회 처리도 하고, 계분 처리도 하고, {유안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 할 수가 있겠고.



[사진 48] 유안 처리를 위한 유안 타기

12) 암모늄 이온의 황산염. 황산과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만든 흰 결정으로, 물에 잘 녹으며, 질소 비료로 쓰인다.

4.2.9. 과수 처리

‘과수’를 제보자는 ‘과산화수소¹³⁾’라고 하였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표백제, 산화제, 소독제 따위로 사용된다. 가죽을 다룰 때에도 과수 처리는 가죽의 색깔을 선명하고 밝게 만들기 위한 표백의 기능을 한다. ‘과수 처리’도 ‘유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북 메우기’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며 현대에 들어와서 작업의 편의와 상품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였다. 요즘 나오는 북의 대부분은 가죽의 색깔이 하얗다. 제보자는 과수 처리가 북소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과수 처리는 물에 과산화수소를 희석하여 북을 메울 가죽을 담가두면 된다.

⇒ 타래를 한 다음에 인제 표백처리, {과수처리} 이런 것이 그 후로 들어가는 거죠.

4.2.10. 재양 치다

가죽에는 우리가 모르는 결이 있다. 그래서 가죽의 모든 면에 똑같이 원형을 잡기 위해 가죽을 늘려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가죽을 늘려줄 때에는 합판에 못을 박아 보통 2, 3일 말리게 된다. 2, 3일을 말리게 되면 가죽에 물기가 남지 않고 마르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재양 치다’라고 한다. 재양을 칠 때에는 가죽이 늘어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죽을 늘려야 한다.

‘재양’은 ‘재양(載陽)’의 잘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재양’은 명주나 모시 따위를 뻥 뒤에, 풀을 먹여 반반하게 펴서 말리거나 다리는 일로 정의하는 한자어이다. 즉, ‘재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재양’을 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재양’과 같은 의미로 ‘쟁’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재양 치다’ 혹은 ‘쟁 치다’가 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

⇒ 왜 {재양을 치느냐} 하면은 원형을 아무리 재단을 하더라도 가죽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가죽도 늘려주기 위해서 {재양을 치는} 거죠.

4.2.11. 물에 담가주기

재양을 친 후 바짝 마른 가죽을 ‘북 메우기’에 사용하려면 가죽을 물에 담가 두어 불려야 한다. 마른 가죽으로는 절대 북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가죽을 불리는 과정은 꼭 필요한 일이다. 마른 가죽은 무척 딱딱하다. 하지만, 물에 담가주면 가죽이 부드러워진다. 가죽

13) 물 분자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결합된 화합물. 색깔과 냄새가 없으며, 분해하면 산소를 내보내고 물이 되므로 강한 산화 작용이 있다. 대개 3% 정도의 수용액을 만들어 표백제, 소독제, 산화제 따위로 쓰인다.

이 부드러워야만 가죽을 다루기가 쉽다.

⇒ 말르고 인저 못을 빼준 다음에 다시 {물에다가 인저 담가주면}은 가죽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죠.

4.2.12. 가죽 밟기

물에 담가 부드러워진 가죽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밟아 주어야 한다. ‘가죽 밟기’를 할 때에는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자루에 넣어서 밟아야 한다. 가죽을 자루에 넣고 밟았다가 꺼내어 무두질을 하고 다시 자루에 넣어 가죽을 밟는 과정을 여러 차례 해야 한다. 과정이 지속될수록 가죽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강해진다. 가죽을 밟고 무두질을 하는 과정은 쇠를 단련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된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된 작업이다.

⇒ 무두질 하기 전에 사실 이 가죽을 또 밟아줍니다. 자루에 너가지고. 밟아주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해지죠.



[사진 49] 가죽 밟을 준비



[사진 50] 가죽 밟기

4.2.13. 무두질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무두질’이란 생가죽, 실 따위를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라 하며, ‘유제(柔製)’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무두질’을 무두대로 날가죽의 지방 등을 훑어내어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무두질’을 ‘무두+-질’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접미사 ‘-질’은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무두’가 도구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제보자는 사전과 한민족 언어 정보화 프로그램의 설명이 옳지 않다고, 잘못을 지적하였다. 우선 생가죽이 아닌 어느 정도 가공된 가

죽을 무두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실을 대상으로 무두질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두질을 할 때에는 ‘무두칼’을 이용해야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한민족 언어 정보화 프로그램에서의 설명은 ‘무두칼’을 ‘무뎃대’로 잘못 설명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여하튼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죽을 다루는 과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제보자는 ‘가죽 다루기’ 과정에서 ‘무두질’과 ‘스기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북의 생명력 있는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두질’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잘못된 설명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랐다.

- ⇒ 가죽 다루기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스기질, 그다음에 {무두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래야만이 생명력 있는 북. 북은 소리가 생명이다.



[사진 51] 무두질



[사진 52] 무두질

4.3. 북 메우기

이제 북을 구성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인 북통과 가죽이 마련되었다. 이제 ‘북 메우기’는 북통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된다. ‘북 메우기’는 크게 북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마련된 북통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도 ‘북 메우기’라고 한다. 이어질 내용은 물론 부분적인 의미로서의 ‘북 메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진 53] 가죽을 씌우고 늘이기
-큰북-



[사진 54] 가죽을 씌우고 늘이기
-작은북-

본 조사에서는 큰북과 작은북의 ‘북 메우기’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북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 메우기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제작 과정을 거친다.

- ⇒ 다만 북 메우자. 그래서 우리가 인저 {북 메우기} 전수자, {북 메우기} 뭐 뭐 문화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북 메우기}쥬. 북통에다가 가죽을 메우니까 {북 메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쥬.

4.3.1. 가죽 펼치기

무두질을 마쳐 북 메우기에 안성맞춤인 통가죽이 마련되면, 통가죽을 북통의 크기에 맞게 자르기 위해 바닥에 펼쳐 놓는 것을 말한다.



[사진 55] 가죽 펼치기

⇒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 준 다음에 다시 그 원형틀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인제 그 가죽을 걸어 준 다음에 일일이 꺾메기를 하죠.

4.3.2. 원형틀 놓기

북의 크기에 맞추어 가죽을 자르기 위한 여러 크기의 원형틀을 만든 후 만들어진 원형틀을 가죽에 올려놓아 가죽을 자를 위치를 가늠해 보는 과정이다.

원형틀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북통의 지름은 정해진 것이 없다. 작은 북의 경우는 보통 40cm 정도이고, 큰 북의 경우는 2m가 넘는 경우도 많다. 제보자의 공방에도 다양한 크기의 원형틀이 있었는데, 제작하는 북에 따라 원형틀을 미리 제작하여 놓았다. 원형틀을 놓을 때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을 메울 때 가죽이 모자라 북을 메울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원형틀을 잘 놓아야 하겠다.



[사진 56] 여러 크기의 원형틀

⇒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 준 다음에 다시 그 {원형틀}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인제 그 가죽을 걸어 준 다음에 일일이 꺾메기를 하죠.

4.3.3. 가죽 자르기

제작할 북의 크기에 맞게 원형틀로 가죽의 넓이를 북의 크기와 가늠하며 북 메우기를 할 적당한 크기로 가죽을 자른다. 북통의 지름이 큰 큰북의 경우에는 가죽 자르기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 북통에 가죽을 씌우면 되지만, 작은 북의 경우는 일일이 가죽 자르기를 해서 북통에 씌울 가죽을 마련한다. 제보자는 재단할 가죽에 칼로 미리 밀선을 그어 표시를 해둔 후에 날이 잘 드는 칼로 가죽 자르기를 하였다. 가죽을 정확한 치수대로 잘라야 북을 메울 때 손실이 없게 된다.



[사진 57] 가죽 자르기

4.3.4. 가죽 걸기

북통 크기에 맞게 원형틀을 대어 잘라낸 가죽을 송곳과 끈을 이용하여 원형틀에 얹어 매는 작업을 ‘가죽 걸기’라고 한다. 가죽을 줄로 별모양처럼 원형틀에 얹어 매어 놓아 가죽의 변형을 막는다.



[사진 58] 가죽 걸기

⇒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 준 다음에 다시 그 원형틀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인해 그 가죽을 걸어 준 다음에 일일이 꺾메기를 하죠.

4.3.5. 줄 뜨다

‘뺨기북’의 경우 현재는 실로 만든 줄로 북통에 가죽을 엮는데, 예전에는 재앙친 가죽을 물에 불린 다음 가죽 끈을 만들어 북통에 가죽을 엮었다. 이러한 과정을 일컫는 말로 제보

자는 ‘줄 뜨다’를 이야기했다. 가죽은 어떤 재질보다 질기기 때문에 가죽으로 끈을 만들면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예전에는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 끈. 뒤 만들자. 줄 뜨자. 이렇게 얘기해요. 줄 떠. 줄 뜨자. 이렇게 얘기 합니다.

4.3.6. 꺾매기

쌌기북의 경우 가죽과 북통을 끈으로 엮는데 이를 ‘꼬맨다’, ‘꺾매기 한다’라고 말한다. ‘꼬맨다’는 충청 방언형이며, ‘꺾매기’ 과정을 끝으로 쌌기북의 ‘북 메우기’가 완성이 된다. 처음에는 열기설기 꺾매기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줄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줄을 유지한다. 줄을 팽팽하게 유지해야만 가죽이 꺼지지 않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사진 59] 북통



[사진 60] 가죽



[사진 61] 꺾매기

⇒ 꼬메 준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꼬맨다. 꺾매기 하자. 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4.3.7. 못 박기

‘썰기북’과 같이 북통과 가죽을 줄로 엮어 북을 메우는 방식의 북도 있지만, 적당한 크기로 자른 가죽을 북통에 대고 직접 못을 박아 북을 메우는 방식도 있다. 장식못을 박는 것과는 다른 과정으로 못을 박아 가죽을 북통에 고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못 박기’라고 한다. 못을 박을 때는 너무 큰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큰 못을 사용할 경우 북통이 갈라질 우려가 있고, 갈라진 틈으로 인해 북의 울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못 박기’의 과정은 우선 북통의 지름보다 크게 자른 가죽을 북통에 씌우고 가죽을 늘어 준다. 가죽을 늘일 때에는 요즘 특별한 기계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 요즘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가죽을 늘어 준 후 북통에 가죽을 대고 원을 그리며 작은 못을 박아 가죽을 북통에 고정시킨다. 이 과정은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통을 메우는 방식이다.



[사진 62] 못 박기



[사진 63] 못 박기 2

4.4. 채색과 장식

북은 종류에 따라 장식못을 박기도 하고, 넓은 북면에 단청을 하기도 한다. 또한 북틀을 제작하여 북틀 위에 북을 올려놓기도 한다. 북은 악기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공예품으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하였다. 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리 못지않게 북 외형의 아름다움과 조화도 북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북에 채색과 장식을 하는 것이다. 과거 궁궐의 행사 때에는 이러한 공예품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채색과 장식이 화려한 북을 많이 연주하였다.



[사진 64] 북틀과 북통

4.4.1. 단청 하기

북 메우기가 모두 끝이 나면 종류에 따라 단청¹⁴⁾을 하기도 한다. 보통, 썩기북과 같은 경우 단청을 하지 않는다. 단청을 하지 않기에 북통에 광목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청을 하는 북은 반드시 광목을 발라야만 단청이 제대로 나오게 된다.

단청은 북통과 북면에 한다. 북통에는 주로 용이나 봉황 따위를 그렸고 북면에는 북의 가장 중심 부분에 태극 문양 등을 그려 넣는다. 단청의 문양은 정해진 틀이 없으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신성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형상화한다. 다만 붉은 빛깔과 푸른 빛깔이 이 감도는 색깔을 선호한다.



[사진 65] 북통 단청



[사진 66] 북면 단청

14) 옛날식 집의 벽, 기둥, 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또는 그 그림이나 무늬.

⇒ 다만 북에다가 인제 {단청이라고 하죠}. 단청. 그림. 그린 거를 그리기 위해서 광목을 저. 싸는,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광목을 싸죠.

4.4.2. 장식못 박기

고장북과 같은 경우 북의 멋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장식못을 박는다. 장식못의 종류는 ‘신쭈못’, ‘비호못’, ‘상평못’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제보자는 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못 박기는 그리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비호못’은 날아다니는 호랑이 문양이 있는 장식못으로 호랑이의 용맹함을 북에 표현하고자 사용하며, ‘상평못’은 조선 인조 때 주조하기 시작했던 엽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재복을 북에 표현하고자 사용하였다.

⇒ 그것보다는 우리는 {못 박기 하자}. 못 박는다. {못 박기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상으로 북을 제작하는 과정을 ‘나무 다루기’, ‘가죽 다루기’, ‘북 메우기’ 그리고 ‘채색과 장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제작 과정 |
|--------|--|
| 나무 다루기 | 쪽 내다, 쪽, 쪽 그리기, 북통 짜다, 살 잡다, 곡선 잡다, 북통 다듬기, 쥘대, 서, 쥘대 넣기, 광목 바르기, 한지 바르기 |
| 가죽 다루기 | 염장 처리, 염장 치다, 수구레제거, 우라구찌, 재 처리, 계분 처리, 쌀겨 처리, 오줌 처리, 된장 처리, 석회 처리, 개니끼, 가죽 깎기, 스키질, 타래하다, 태고, 유안 처리, 과수 처리, 재앙 치다, 물에 담가주기, 가죽 뺏기, 무두질, |
| 북 메우기 | 가죽 펼치기, 원형 틀 놓기, 가죽 자르기, 가죽 걸기, 줄 뜨다, 꿰매기, 못 박기 |
| 채색과 장식 | 단청 하기, 못 박기, 신쭈못, 비호못, 상평못 |

5. 북의 종류

5.1. 북통 만들기 방식

북통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통북과 쪽북으로 구분할 수 있다.

5.1.1. 통북

‘통북’은 통나무를 파 북통을 제작하여 만든 북을 일컫는다. 통나무의 크기에 따라 북통의 크기가 결정되기에 많이 제작되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는 주로 고장북, 썰기북과 같은 작은 북을 제작할 때에만 통북으로 만든다.

⇒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장북이나 우리 전통적인 썰기북이나 이러한 거 정도는 {통북}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진 67] 고장북



[사진 68] 썰기북

5.1.2. 쪽북

‘쪽북’은 나무를 쪽 내서 쪽을 이어 붙여 북통을 제작하는 북의 종류이다. ‘쪽북’은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것이므로 북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북의 크기를 조절하며 북을 제작한다. 보통 ‘용고’와 같은 큰 북을 제작할 때 쪽을 이어 붙여 북통을 만든 쪽북을 제작하게 된다. 물론 작은 북도 작은 쪽을 내서 이어 붙여 제작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북은 쪽북이다. 통을 파서 북통을 만드는 통북은 만들기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목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의 쪽북을 만든다. 제보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북은 쪽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통북보다는 쪽북이 북의 진화적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양상의 북통 만들기 방식이라고 했다. 예전 북

을 처음 만들던 시절에는 북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구하고, 구한 나무를 파서 북통을 만들었지만, 점차 기술이 발달하여 쪽북을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제보자는 대부분 쪽북을 제작하고 있었다.

- ⇒ {쪽북}은 쪽을 내서 인제 그것은 즉 재료가 없죠. 큰북은 역시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쪽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쪽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사진 69] 작은 쪽북통



[사진 70] 큰 쪽북통

5.2. 채색과 장식의 유무

북은 악기로서의 기능 즉, 소리가 좋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소리와 더불어 모양새도 보기 좋아야 한다. 북통은 모양새가 좋아야 당연히 소리도 좋게 된다. 쪽을 잘못 냈거나, 가죽을 잘못 다루게 되면, 모양새는 물론 소리도 망가진다.



[사진 71] 털 제거가 미흡한 북

이왕이면 모양새가 예뻐, 보기 좋은 악기가 사람들은 더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북에 단청을 하고 장식못을 박으며, 북틀을 제작했던 이유는 북을 단순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의 선을 벗어나 하나의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생각했음을 알게 해주는 방증의 자료이다.

5.2.1. 못북

북을 메우기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북통에다 가죽을 씌우기 위해 못을 박는 방식의 북도 있다. 이 북은, 못이 가죽과 북통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못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못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난 못을 좀 더 아름답게 제작하여 북통에 못을 박으면 그 자체로도 보기 좋은 북이 된다. 이러한 북을 ‘못북’이라고 한다. ‘못북’은 보통 전라남도 진도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하여 ‘진도북’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진 72] 못북

⇒ 뭐다 이거는 단어가 그러네요. 작은 북이 {못북}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줄북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장식용 북으로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출하긴 그러네요.

5.2.2. 백북/백통

단청을 하는 북을 상대적으로 일컫는 말로, 북통 및 북면에 단청을 하지 않는 북을 가리켜 ‘백북’, ‘백통’이라고 한다. 즉 ‘백북’은 북 종류의 고유 명칭이 아니라 북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 물자가 풍요롭지 않던 시절 단청을 하지 않아 깨끗한 북을 하얀색으로 표현하여 가리켰던 말이다.

- ⇒ {백북}이라고 하는 것은 글썩 옛날에는 인제 여러 가지 물자가 없었겠죠. 지금은 와서는 물자 만능시대. 북도 보면은 기왕이면은 외적으로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색깔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백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북’, ‘백통’의 한 종류로 ‘쌌기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쌌기북’은 ‘농악북’이라고도 하는데, 단청을 하지 않는다. 주로 사물놀이와 농악에서 사용되는 북이다. 북의 크기는 북의 특성상 들고 쳐야하기 때문에 그리 크지는 않다.

‘쌌기북’은 북의 바깥에 쌌기를 만들어 넣는다. 그 이유는 북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죽이 늘어나게 되어 팽팽함을 잃게 되는데, 쌌기를 넣어줌으로써 줄을 당겨주어 다시금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이미 제작해 놓은 북의 가죽이 오래되어 늘어나는 것을 ‘가죽 꺼진다’라고 표현하였다.



[사진 73] 쌌기북

- ⇒ 그런 거는 그 줄을 당겨주기 위해서 쌌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그 북을 인제 {쌌기북}이다 이렇게. 쌌기를 만들어 넣던 거죠.
- ⇒ 그것은 왜 만들어 넣게 되냐면은 북을 오래 사용하다가 보면은 {가죽이 좀 뭐 꺼진다고} 할까? 늘어나죠.

5.3. 도와 고

북을 앞서 ‘고’와 ‘도’로 나누어 구분한다고 하였다. 즉, ‘고’는 북채로 북을 직접 때려 소리를 내는 것이고, ‘도’는 북통에 끈을 매달아 놓고 흔들어 소리를 내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는 매우 희귀하지만, 고는 여전히 우리의 문화 속에 남아있다. 제보자는 북의 종류에 대해 ‘삭고’, ‘교방고’, ‘진고’, ‘응고’, ‘삭고’, ‘뇌고’, ‘용고’, ‘노고’, ‘절고’, ‘진고’, ‘무고’, ‘좌고’, ‘노도’, ‘뇌도’ 등을 이야기하였다.

- ⇒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에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썩기북, 못북, 줄북, 고장북, 이제 뭐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삭고}, {뇌고}, {용고}도 있고 {노고}, {절고}, {진고}, {교방고}, {무고}, {좌고}, 뭐 등 등 해가지고 {용고}라고도 있고 {노도}, {뇌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5.3.1. 삭고

우리나라 북의 하나로. 좌고와 비슷하나 틀 위에 달 모양을 새긴 것으로, 노래나 관현악 합주의 시작을 알릴 때에 쓴다.

5.3.2. 교방고

‘교방고’는 당악기¹⁵⁾에 속하는 북의 하나로 모양은 납작하고 북통 둘레에는 서린 용이 그려져 있다. 북을 북면이 위로 가게 틀에 걸어 놓고 채로 치게 된다.

5.3.3. 건고

궁중에서 사용한 북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화려한 북으로 주로 궁중의 여러 음악에 사용했다고 한다.

5.3.4. 응고

아악기에 속하는 북의 하나이다. 앞드린 호랑이 모양의 두 받침대 위에 틀을 세우고 긴 북을 건 것으로, 틀 위에는 붉은 칠을 하여 달 모양을 그렸다. 주로 조회(朝會)¹⁶⁾나 연향(宴享)¹⁷⁾에 사용하였다.

5.3.5. 뇌고

국악에서 쓰는 타악기의 하나이다. 검은 칠을 한 여섯 개의 북을 한 묶음으로 하여 틀에 매달아 친다. 뇌도와 함께 천제(天祭)를 지낼 때 썼다.

5.3.6. 용고

우리나라 북의 하나이다. 용을 그린 북통 양쪽에 고리를 박아 끈을 달고, 어깨에 메고 두 손에 쥔 채로 내려친다.

15) 중국 당나라의 악기로 당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기.

16) 모든 벼슬아치가 함께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17) 국민을 대접하는 잔치.

5.3.7. 노고

국악에서 쓰는 아악기의 하나이다. 붉은 칠을 한 긴 북 두 개를 포개어 가자(架子)¹⁸⁾에 건 사면고(四面鼓)이다. 음악의 매 악절 끝에 두 번씩 쳐서 박자를 맞추며, 인신(人神)의 제사인 문묘(文廟)와 선농(先農) 따위에 쓰였다.

5.3.8. 절고

아악기(雅樂器)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이다. 붉은 칠을 한 나무 상자 위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된 북으로, 모양은 진고(晉鼓)와 비슷하지만 동(胴)이 짧다. 등가악(登歌樂)¹⁹⁾에만 편성하여, 주악의 시작과 마침에 쓴다.

5.3.9. 진고

아악기(雅樂器)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이다. 통이 긴 북으로, 나무틀 위에 놓고 친다.

5.3.10. 무고

궁중 정재(呈才)²⁰⁾ 때에 쓰던 북의 하나로, 북의 면은 청·홍·백·흑의 네 빛깔로 네 방위를 나타내며, 기둥이 셋인 틀 위에 얹혀 놓고 두드린다.

5.3.11. 좌고

북걸이에 달아 놓고 옆에 앉아서 채로 치는 둥글넓적한 북으로, 관현 합주나 춤의 반주에 쓴다.

5.3.12. 노도

국악기의 하나이다. 몸통이 긴 작은북 두 개를 십자형으로 자루에 꿰 것으로, 각 북의 허리 양쪽에 가죽 끈을 매달아 자루를 돌릴 때마다 끈이 북에 부딪쳐 소리를 낸다. 자루 꼭대기에는 활짝 핀 연꽃 위에 나는 새를 앉혔다.

18) 편중, 편경 따위를 달아 놓는 틀.

19) 고려 예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전래된, 아악(雅樂) 연주 형태의 하나. 노래와 현악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의 아악 편성으로, 대궐의 대청 위에서 연주하였다.

20) 대궐 안의 잔치 때에 벌이던 춤과 노래.

5.3.13. 뇌도

국악에서 쓰는 타악기의 하나이다. 몸통이 길고 자그마하며 바퀴마다 끈이 둘씩 달린 북 세 개를 북틀에 십자형(十字形)으로 어긋나게 달아맨 것으로, 자루를 흔들면 바퀴에 매 달린 끈이 북의 면을 쳐서 소리를 낸다. 뇌고(雷鼓)와 함께 천제(天祭)를 지낼 때 썼다.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대전·충남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북 메우기와 관련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악기장 김관식을 제보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제보자와 함께 여러 날에 걸쳐 북을 메우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제보자와 북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것에 대해 더 생각해보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조사는 우선 북의 종류와 북의 기원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북을 메우는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 북이 갖는 여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좋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제보자의 생각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조심스레 조사에 착수하였다. 제보자의 북 메우기 시연과 함께 그에 대한 설명, 제보자의 생애를 알아 가며 하나의 것에 몰두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간단한 진리도 얻었던 기회였다.

조사는 북 메우기 과정을 ‘나무 다루기’와 ‘가죽 다루기’로 구분하여 제작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용어와 도구들의 명칭을 살펴보았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북 메우기 과정은 북의 주재료가 나무와 가죽이기에 크게 나무를 다루는 것과 가죽을 다루는 것으로 대별한다. 나무를 다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죽을 다루는 것은 북 메우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무 다루기는 좋은 목재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북을 만들 나무는 소나무와 오동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특히 소나무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데, 소나무의 재질이 북을 만들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가죽 다루기 역시 좋은 가죽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장 이상적인 가죽은 거세를 하지 않은 4, 5년이 된 황소의 가죽이 으뜸이다. 암소나 거세한 소의 가죽은 가죽이 얇기 때문에 좋은 가죽으로 볼 수 없다.
- 2) 북 메우기 과정에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한다. 일반 가정생활에서 쓰이는 도구들과 달리 조금은 생소한 것들을 사용하여 북통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와, 가죽을 다루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역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북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나무에 쪽을 그리고 쪽을 내어 그 쪽을 이어 붙여 북통을 만드는 방식인데, 쪽을 그리고 쪽을 맞추는 작업을 할 때 ‘금긋기자’, ‘빋쪽매본’ ‘로꼬

로칼'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며, 가죽을 다루는 작업에는 '가죽 깎는 칼', '송곳', '무두칼' 등이 필요하다.

- 3) 북 메우기 과정 역시 나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과 가죽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들이다. '쪽을 내다', '북통 짜다', '살 잡다', '곡선 잡다', '북통 다듬기' 등이며, 가죽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조금 더 복잡하다. '염장 처리', '염장 치다', '수구레제거', '우라구찌', '재 처리', '계분 처리', '쌀겨 처리', '오줌 처리', '된장 처리', '석회 처리', '개니끼', '가죽 깎기', '스기질', '타래하다', '태고', '유안 처리', '과수 처리', '재앙 치다', '물에 담가주기', 가죽 밟기, '무두질' 등은 모두 가죽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들이었다.

가죽과 나무를 다루었으면, 마지막으로 북을 메우고 북의 종류에 따라 채색과 장식을 하며 제작 과정을 마친다.

- 4) 북의 종류는 크게 도와 고로 나누며, 북통 제작 방식에 따른 분류와, 채색과 장식의 차이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류의 방식에 의해 '못북', '줄북', '백북', '뿔기북', '노도', '영고', '뇌도', '삭고', '교방고', '건고', '용고', '뇌고', '절고', '진고', '무고', '좌고' 등 많은 종류의 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 메우기에 관한 조사를 통해, 본 조사는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지금까지 북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와 자료는 비교적 많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 즉, 제작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기술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본 조사는 북 메우기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장인의 설명을 채록하여 전자함으로써 보다 현장성이 가미된 연구가 되었다.
- 3) 북 메우기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어휘 수집을 수행해 봄으로써 북 메우기의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5)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북 메우기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제보자는 대전에서 나고 자랐지만, 충청남도의 방언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으로 방언 어휘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아쉽다. 또한 일본어의 간섭으로 형태소가 불명확한 어휘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일본어가 우리말을 대신하여 우리말이 사장되어 버렸다. 일제 강점기 시기의 북 메우기 과정 언어가 우리

말에서 사라진 것이다. 분명 우리말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작업이 시급하고 또 보완해야 할 당위성을 느꼈음에도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 2) 민족생활어 Web DB를 구축하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모든 데이터를 주제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의 검색 기능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짧은 이유로 동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지숙(2007). 『2007년도 민족생활어조사4』, 국립국어원
송혜진(2001), 『한국악기』, 열화당.
송혜진 외(2006), 『악기장』, 민속원.

부 부

09 북매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상세 분류1 | 상세 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음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음성 | 명단 정보 서지 | 표준국어 사전 등록여부 | |
|-----|------|-----|-----|------|--------|--------|----------|------|-------|---------------------------|---------------------------|---|------------|-------|-------|-------------|-------------|--------------------|--|
| 수용어 | 북매우기 | | | | | | 북 | 북 | 명 | 북은 음체를 두드려 소리 내는 타악기의 총칭. | 북은 음체를 두드려 소리 내는 타악기의 총칭. | 아. {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기 이제 3대째이고, 또 하나는 많은 문물이 북을 언제부터 배웠는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님 옛속에서부터 배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 관악식(대전광역시) | 0 | * | 0 | | | |
| 수용어 | 북매우기 | 종류 | 고 | | | | 고 | 고(鼓) | 명 | 북채로 북면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북. | 북채로 북면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북. | 고에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건고, 응고, 삭고, 노고, 영고, 노고, 건고, 진고, 교방고, 좌고, 용고, 풍물북, 소리북, 절북 등이 있다. | 관악식(대전광역시) | 0 | * | 0 | | | |
| 수용어 | 북매우기 | 종류 | 도 | | | | 도 | 도(鼓) | 명 | 북채에 끈을 매달아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북. | 북채에 끈을 매달아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북. | 내. 북의 종류는 뭐 다양하죠. 오천 역사로 볼 때는 도. {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 관악식(대전광역시) | 0 | * | 0 | | | |
| 수용어 | 북매우기 | 종류 | 고 | | | | 건고 | 건고 | 명 | 아악기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 | 아악기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 |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내림오는 쇠기북, 못북, 줄북, 고장북 이제 뭐 그 이외로 남아있다면 이제 뭐 {삭고}, {삭고}, {응고}, {응고}, {진고}, {진고}, {교방고}, {무고}, {좌고}, {좌고}, {용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 관악식(대전광역시) | 0 | * | 0 | | | |
| 수용어 | 북매우기 | 종류 | 고 | | | | 응고 | 응고 | 명 | 아악기에 속하는 북의 하나. | 아악기에 속하는 북의 하나. |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내림오는 쇠기북, 못북, 줄북, 고장북 이제 뭐 그 이외로 남아있다면 이제 뭐 {삭고}, {삭고}, {응고}, {응고}, {진고}, {진고}, {교방고}, {무고}, {좌고}, {좌고}, {용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 관악식(대전광역시) | 0 | * | 0 | | | |
| 수용어 | 북매우기 | 종류 | 고 | | | | 노고 | 노고 | 명 | 북에서 쓰는 타악기의 하나. | 북에서 쓰는 타악기의 하나. |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내림오는 쇠기북, 못북, 줄북, 고장북 이제 뭐 그 이외로 남아있다면 이제 뭐 {삭고}, {삭고}, {응고}, {응고}, {진고}, {진고}, {교방고}, {무고}, {좌고}, {좌고}, {용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 관악식(대전광역시) | 0 | * | 0 | | | |
| 수용어 | 북매우기 | 종류 | 고 | | | | 노고 | 노고 | 명 | 북에서 쓰는 아악기의 하나이다. | 북에서 쓰는 아악기의 하나이다. |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내림오는 쇠기북, 못북, 줄북, 고장북 이제 뭐 그 이외로 남아있다면 이제 뭐 {삭고}, {삭고}, {응고}, {응고}, {진고}, {진고}, {교방고}, {무고}, {좌고}, {좌고}, {용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 관악식(대전광역시) | 0 | * | 0 | | | |

09 북매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상세 분류1 | 상세 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유래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유무 | 명단 정보 유무 | 표준국어대사전 등록여부 |
|-----|---------|-----|-----|------|--------|--------|----------|-----|-------|-------|--------------------------|---|---|-------|-------|----------|----------|--------------|
| 수용어 | 북매우기 종류 | 고 | 고 | | | | 진고 | 진고 | | 명 | 아악기(雅樂器)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이다. |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쇠기북, 우북, 줄북, 고장북이제 뒤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진고}, {노고}, {우고}, {좌고}, {좌고}, {좌고}, {좌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뒤 여러 가지 뒤 많이 있습니다. | 북은 칠을 한 나무 상자 위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된 북으로, 모양은 원(圓)과 사(四)각(四角)에 비유하지만 동(銅)이 아니다. 등가역(等歌樂)에만 편성하며, 주악의 시작과 마침에 쓴다. | | | * | 0 | |
| 수용어 | 북매우기 종류 | 고 | 고 | | | | 진고 | 진고 | | 명 | 아악기(雅樂器)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 |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쇠기북, 우북, 줄북, 고장북이제 뒤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진고}, {노고}, {우고}, {좌고}, {좌고}, {좌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뒤 여러 가지 뒤 많이 있습니다. | 북이 긴 북으로, 나무를 위에 놓고 김관식(大建管)이 연주한다. | | | * | 0 | |
| 수용어 | 북매우기 종류 | 고 | 고 | | | | 교방고 | 교방고 | | 명 | 타악기(唐樂器)에 속하는 북의 하나이다. |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쇠기북, 우북, 줄북, 고장북이제 뒤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진고}, {노고}, {우고}, {좌고}, {좌고}, {좌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뒤 여러 가지 뒤 많이 있습니다. | 노양은 납작하고 북쪽 줄레에는 서(絲)로 된 용(繩)이 그려져 있다. 북을 북면(北面)이 위로 가게 틀에 걸쳐 놓고 채로 친다. | | 0 | * | 0 | |
| 수용어 | 북매우기 종류 | 고 | 고 | | | | 무고 | 무고 | | 명 | 관중 장제(柸子) 때에 쓰던 북의 하나. |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쇠기북, 우북, 줄북, 고장북이제 뒤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진고}, {노고}, {우고}, {좌고}, {좌고}, {좌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뒤 여러 가지 뒤 많이 있습니다. | 북의 면은 창·홍·백·흑의 네 색(色)으로 채로 내 평위를 나타내며, 기둥이 셋(三)인 틀 위에 놓여 놓고 두드린다. | | | * | 0 | |
| 수용어 | 북매우기 종류 | 고 | 고 | | | | 좌고 | 좌고 | | 명 | 주악 타악기의 하나. |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쇠기북, 우북, 줄북, 고장북이제 뒤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진고}, {노고}, {우고}, {좌고}, {좌고}, {좌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뒤 여러 가지 뒤 많이 있습니다. | 북결이에 담아 놓고 옆에 얹어서 채로 치는 등골납작한 북으로, 편원형(圓形)이나 원의 일부에 쓴다. | | | * | 0 | |
| 수용어 | 북매우기 종류 | 고 | 고 | | | | 용고 | 용고 | | 명 | 우리나라 북의 하나. | 인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쇠기북, 우북, 줄북, 고장북이제 뒤 그 이외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고}, {삭고}, {교방고}, {건고}, {응고}, {진고}, {노고}, {우고}, {좌고}, {좌고}, {좌고}라고도 있고 {노도}, {노도} 뒤 여러 가지 뒤 많이 있습니다. | 용을 그린 북쪽 양쪽에 고리를 부여하여 북을 들고, 어깨에 매고 두 손에 쥐어 채로 내려친다. | | | * | 0 | |

09 북매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상세 분류1 | 상세 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음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 명단 정보 | 표준국어 |
|-----|------|-----|-----|------|--------|--------|----------|-----|-------|-------|-----|----|------|-------|-------|-------|-------|------|
| 수용형 | 북매우기 | 종류 | 고 | 고장북 | | | 고장북 | 고장북 | | 발음 정보 | 뜻풀이 | 음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 명단 정보 | 표준국어 |
| 수용형 | 북매우기 | 종류 | 고 | 고장북 | | | 고장북 | 고장북 | | 발음 정보 | 뜻풀이 | 음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 명단 정보 | 표준국어 |
| 수용형 | 북매우기 | 종류 | 도 | 노도 | | | 노도 | 노도 | | 발음 정보 | 뜻풀이 | 음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 명단 정보 | 표준국어 |
| 수용형 | 북매우기 | 종류 | 고 | 줄북 | | | 줄북 | 줄북 | | 발음 정보 | 뜻풀이 | 음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 명단 정보 | 표준국어 |
| 수용형 | 북매우기 | 종류 | 고 | 줄북 | | | 줄북 | 줄북 | | 발음 정보 | 뜻풀이 | 음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 명단 정보 | 표준국어 |

09 북메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상세 분류1 | 상세 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유래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의성어 | 명단 정보 의태어 | 표준국어 시진 등록번호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별 제거 | | 구 | 반달모양의 통 위에 발효된 가족을 올려놓 고 반월형 절도 통을 마는 과정이다. | 인제 그 석회처리, 민장처리, 오종처리 등 이런 것들은 인제 집단 가족 북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 것인데 {통이 제거}가 돼야 되니까 통을 일단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를 계 생각하시면 돼요. | 인종 명식의 통 제거는 가족에 신경 이 덜 가는 방법이었지만, 통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많 았었다. 그런 이유로 통이 붙어 있 는 채로 북을 메우기도 하였다. 현재 는 석회를 이용한 '석회 처리'를 인 종 명식의 처리보다 더욱 쉽게 통 을 제거할 수 있다. 우선 석회를 통 에 잘 개어 안 가족에 발라 둔 후 시 건이 흐르면 통을 가족에서 뺐는다. 지금은 뺐은 통을 그냥 버리지만, 예 전에는 전부 모아서 북을 만드는 공 정에 붙었다고 한다. | 김관식(대전광 역시) | | 0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우라구찌 | | 구 | 안가족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과 정. | 우라구찌)라고 하는 것은 즉 가족 안에 그 기름덩어리, 살덩어리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일단 제거해준 다음에 민장처리 석회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서 {우라구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 김관식(대전광 역시) | 0 | *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개니끼 | | 구 | 반월가족의 잔통을 제거하고 가족의 때를 뺏기는 과정. | {개니끼} 하지 하면은 남은 통 제거하고 때 를 벗겨주는 거죠. 그것이야제 {개니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 김관식(대전광 역시) | 0 | *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오종 처리 | | 구 | 가족의 통을 제거하기 위해 오종에 담가두 는 과정이다.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재처리, 석회 처리, 계분 처리, {오종 처리}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재료가 없을 때에 재 처리, 계분 처 리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구태어 그할게까 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족의 재 양치기가 있죠. | 김관식(대전광 역시) | | *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석회 처리 | | 구 | 가족의 통을 제거하기 위해 석회를 섞은 물 에 담가두는 과정이다.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재처리, {석회 처리}, 계분 처리, 오종 처리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재료가 없을 때에 재 처리, 계분 처 리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구태어 그할게까 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족의 재 양치기가 있죠. | 김관식(대전광 역시) | 0 | *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발개 처리 | | 구 | 가족의 통을 제거하기 위해 발개에 묻어 두 는 과정이다. | 또 계분 처리, 석회 처리, {발개 처리} 뭐 이런 거 등이 다 따로따로 구별이 돼 있어 요. | 김관식(대전광 역시) | | *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계분 처리 | | 구 | 가족의 통을 제거하기 위해 계분에 묻어 두 는 과정이다.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재 처리, 석회 처리, {계분 처리}, 오종 처리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재료가 없을 때에 재 처리, 계분 처 리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구태어 그할게까 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족의 재 양치기가 있죠. | 김관식(대전광 역시) | | *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명 | 다루기 | 가족 | | | | 민장 처리 | | 구 | 가족의 통을 제거하기 위해 민장을 발라두 는 과정이다.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재 처리, 석회 처리, 계분 처리, 오종 처리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재료가 없을 때에 재 처리, 계분 처 리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구태어 그할게까 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족의 재 양치기가 있죠. | 김관식(대전광 역시) | | * | | | | | |

09 북메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유래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시조 | 명단 정보 음성 | 명단 정보 시진 | 표준국어 특징어휘 | |
|-----|------|----------|-----|------|----------|-------|-------|-------|--|---|------------------------------------|--------------|-------|-------------|-------------|-------------|--------------|--|
| | | 제작과 경 | 다루기 | 가죽 | | 과수 | | 명 |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표백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이 그 후로 들어가는 거죠. | 과수를 제모지는 '과산화수소'라고 하였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표백제, 산화제, 소독제 따위로 사용된다. '가죽'을 다룰 때에도 과수 처리는 가죽의 색깔을 선명하고 밝게 만들려는 데에 사용된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 과산화수소(대전광역시) | | | | | | | |
| 수용업 | 북메우기 | 제작과 경 | 다루기 | 가죽 | | 과수 처리 | | 명 |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표백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이 그 후로 들어가는 거죠. | 과수를 제모지는 '과산화수소'라고 하였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표백제, 산화제, 소독제 따위로 사용된다. '가죽'을 다룰 때에도 과수 처리는 가죽의 색깔을 선명하고 밝게 만들려는 데에 사용된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과수'는 '과수'와 '과수'의 접합어이다. | 과산화수소(대전광역시) | | * | | | | | |
| 수용업 | 북메우기 | 도구 | 매우기 | | | 구두칼 | | 명 | 북(고장북, 민선양북)을 매운다음 어분의 가죽을 잘라낼 때 사용. 구두칼이 필요하지요. | 다만 북북, 고장북, 노고, 노고, 영도, 시고 등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북을 만들 때에는 구두칼이 필요하지요. | 과산화수소(대전광역시) | | * | | | | | |
| 수용업 | 북메우기 | 도구 | 매우기 | | 승곳 | 승곳 | | 명 | 과수를 잘라서 가죽과 쇠테를 엮는데 사용. 이렇게 하죠. |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진 다음에 다시 그 원형을 만들어서 승곳으로 만들어 가죽을 엮어 줘야 되죠. | 과수를 잘라서 가죽과 쇠테를 엮는데 사용. 이렇게 하죠. | 과산화수소(대전광역시) | | 0 | * | | 0 | |
| 수용업 | 북메우기 | 도구 | 다루기 | 가죽 | | 무두칼 | | 명 | 과수를 잘라서 가죽과 쇠테를 엮는데 사용. 이렇게 하죠. | 무두칼은 여러 가죽을 붙이다 보니 칼이 필요하죠. 무두칼은 가죽을 잘라내는 데 사용. 이렇게 하죠. | 과수를 잘라서 가죽과 쇠테를 엮는데 사용. 이렇게 하죠. | 과산화수소(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업 | 북메우기 | 도구 | 다루기 | 나뭇잎 | | 북메우기 | | 명 | 북(고장북, 민선양북)을 매운다음 어분의 가죽을 잘라낼 때 사용. 구두칼이 필요하지요. | 북(고장북, 민선양북)을 매운다음 어분의 가죽을 잘라낼 때 사용. 구두칼이 필요하지요. | 과수를 잘라서 가죽과 쇠테를 엮는데 사용. 이렇게 하죠. | 과산화수소(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업 | 북메우기 | 도구 | 다루기 | 가죽 | 승곳 | 승곳 | | 명 | 과수를 잘라서 가죽과 쇠테를 엮는데 사용. 이렇게 하죠. | 북(고장북, 민선양북)을 매운다음 어분의 가죽을 잘라낼 때 사용. 구두칼이 필요하지요. | 과수를 잘라서 가죽과 쇠테를 엮는데 사용. 이렇게 하죠. | 과산화수소(대전광역시) | | 0 | * | | 0 | |

09 북메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소분류3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의성어 | 명단 정보 의태어 | 표준국어 시제 등록여부 |
|-----|------|----------|-----|------|------|----------|-------|-------|-------|--|---|--|------------|-------|--------------|--------------|--------------------|
| 수용어 | 북메우기 | 도구 | 다루기 | 가죽 | | | 개니까랄 | | | 명 개니까짐을 할 때 사용하는 칼. | 그거 뭐 제일 처음 가죽 다루기에는 {우리 구제칼}이 있고 개니까랄이 있는데 거 뭐 같이 사용한다 보면 되고. | 가죽의 안쪽과 바깥쪽을 손질하는 도구이다. 가죽의 안쪽을 손질하는 작업을 '우리구제'라고 하며, 가죽의 바깥쪽을 손질하는 작업을 '개니까'라고 한다. 모두 일본어로 순화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구제칼', '개니까칼'은 어떤 작업을 할 때 하고 있는가에 따라 부르는 양상이 달라진다. 도구는 같은 것이지만, 안쪽 가죽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구제칼'이라고 부르며, 바깥쪽 가죽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는 '개니까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날이 아주 날카롭지는 않다.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도구 | 다루기 | 가죽 | | | 우리구제칼 | | | 명 우리구제 할 때 사용하는 칼. | 그거 뭐 제일 처음 가죽 다루기에는 {우리 구제칼}이 있고 개니까랄이 있는데 거 뭐 같이 사용한다 보면 되고.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도구 | 다루기 | 나무 | | | 문꼬로칼 | | | 명 북뿔을 깎는데 사용. | 때 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뿔 깎는 칼}로 깎아주고 대패질도 하고. | 문꼬로칼을 제모지는 북뿔을 파는 데 사용하는 칼이라고 하였다. 북뿔을 파기 위해 칼날의 모양은 반원인 종수알 모양이라고 하였다. 제모지는 일뿐이라는 말인데 어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모자 역시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다만, '북뿔 파기 칼', '뿔 깎기 칼' 정도로 순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쟁 | 다루기 | 나무 | | | 구선 짐다 | | | 구 살 짐다'와 같음. | 인제 그 뿔뿔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인제 그 뿔뿔을 그려 놓 다음에 곡선을 인제 그 짐다. {곡선을 잡는다}. 아니면 살 짐는다. 그 짐다 얘기를 하세요. 살을 짐어서 인제 그 짐다 얘기를 하세요. 살을 짐어서 인제 그 짐다. 두 가지 둘 모두 쓴다.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쟁 | 다루기 | 나무 | | 서 | 서 | | | 명 북뿔에서 '쫄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북뿔 인죽을 두툼하게 만든 부분. | 쫄뿔같은 경우는 인제 북뿔을 그 깎아 쫄뿔에 인제다가 {서}라고 하죠. {서}.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0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쟁 | 다루기 | 나무 | | | 서 파기 | | | 구 서를 파는 일을 말한다. | 서는 인제 쫄대 대신에 쫄뿔에는 예시영조 할 때에 {서를 너서 파게} 됩니다. | 김관식(대전광역시) | | |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쟁 | 다루기 | 가죽 | | | 양장 처리 | | | 구 도축한 쇠가죽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말한다. | 인대 뭐 가죽은 쫄대적 {양장 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양장 처리} 해야 되요. | 소를 도축하여 바로 가죽을 얻을 경우 가죽에는 핏기가 남아 있다. 또한 가죽은 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핏기를 제거하는 목종도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목종도 있다. 양장 처리는 한두 달 정도 하며 핏기가 가시고 양장이 잘 생기게 장인에게 가는 것이다.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수용어 | 북메우기 | 제작과 쟁 | 다루기 | 가죽 | | | 양장 치다 | | | 구 양장 처리와 같음. | {양장 치다}. 라는 것은 인제 아까도 뭐 얘기 했듯이 소를 잡으면 바로 가죽이 성하니 까 상하지 안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가죽의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장을 친다}.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09 북메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시제 | 명단 정보 성격 | 표준국어 시제 | 표준국어 성격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가죽 | | 스기질 | 발음 정보 | 명 | 가죽 꺾기와 같은 작업 과정임. | 우리로서는 인제 그 뭐 {스기질} 한다. 가죽을 인쪽을 꺾어줄 때는 {스기질} 하자. 또 인쪽에 가죽 꺾기 이전에 기를 제거 할 때 우라구찌 하자. | | | | 0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가죽 | | 가죽 꺾기 | 발음 정보 | 구 | 누위에 따른 가죽의 두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가죽을 꺾는 작업을 말한다. | 우리로서는 인제 그 뭐 스키질 한다. 가죽 꺾어서는 인제 그 뭐 스키질 한다. 가죽을 인쪽을 꺾어줄 때는 스키질 하자. 또 인쪽에 {가죽 꺾기} 이전에 기를 제거 할 때 우라구찌 하자.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가죽 | | 타래 | 발음 정보 | 명 | 꺾어 준 가죽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작업. | 가죽 꺾어 준 다음에 일단 가죽을 깨끗이 세척을 해주어야 되니까 {타래한다}. 타래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도 뭐 타래 하자. 이렇게 하니까요. | | | | 0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가죽 | | 타래하다 | 발음 정보 | 동 | 꺾어 준 가죽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 가죽 꺾어 준 다음에 일단 가죽을 깨끗이 세척을 해주어야 되니까 {타래한다}. 타래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도 뭐 타래 하자. 이렇게 하니까요.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가죽 | 유안 | 유안 | 발음 정보 | 명 | 질소비료의 한 성분으로 황산에 염모니아를 반응시켜 만든 것. | {유안}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예 할 수가 있겠고. | | | | 0 | | 0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가죽 | | 약안 처리 | 발음 정보 | 구 | {황산염분}을 탄 물에 가죽을 담가서 가죽을 무르게 하여 부드럽게 하기 위한 처리 방식이다. | {유안}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예 할 수가 있겠고.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가죽 | | 가죽 꺾기 | 발음 정보 | 구 | 가죽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 무두질을 하기 전에 자루에 가죽을 담아 밟는 과정을 말한다. | 무두질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무두질을 하기 전에 자루에 가죽을 담아 밟는 과정을 밟는다. | 동메 달가 부드러운 가죽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밟아 주어야 한다. '가죽 밟기'를 할 때에는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자루에 넣어서 밟아야 한다.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매우기 | | 가죽 펼쳐기 | 발음 정보 | 구 | 무두질을 마쳐 북 메우기에 인성맞춤인 북 가죽이 마련되면, 북가죽을 북통의 크기에 맞게 자르기 위해 비드에 펼쳐 놓는 것을 말한다. |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 준 다음에 다시 그 원형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인제 그 가죽을 걸쳐 준 다음에 일일이 꿰매기를 하죠.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매우기 | | 원형을 놓기 | 발음 정보 | 구 | 북의 크기에 맞추어 가죽을 자르기 위한 여러 크기의 원형을 만든 후 만들어진 원형을 북통을 가죽에 올려 놓아 가죽을 자를 위치를 기용해 보는 과정이다. |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 준 다음에 다시 그 원형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인제 그 가죽을 걸쳐 준 다음에 일일이 꿰매기를 하죠.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매우기 | | 가죽 깔기 | 발음 정보 | 구 | 북통 크기에 맞게 원형을 대어 책라낸 가죽을 송곳과 끈을 이용하여 원형틀에 얹어 꿰는 작업을 말한다. | 그러면 이제 가죽을 펼쳐줘야 되니까 펼쳐 준 다음에 다시 그 원형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인제 그 가죽을 걸쳐 준 다음에 일일이 꿰매기를 하죠.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0 | * | | | |
| 수용형 | 북메우기 | 제작과 정 | 소분류 | 매우기 | | 줄 뜨다 | 발음 정보 | 구 | 북을 뿔 줄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 북을 뿔 줄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 | 뿔기북의 경우 원래는 실로 만든 줄로 북통에 가죽을 엮는데, 예전에는 개인이 만든 가죽을 뿔 줄에 꿰는 것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일컫는 말로 제조자는 '뿔 뜨다'를 이야기 했다. | | 김관식(대전광역시) | | | | | | |

09 복메우기 조사 어휘(박영수)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2 | 상세 분류1 | 상세 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참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명단 정보 어휘 | 명단 정보 어휘 | 표준국어 |
|-----|------|----------|----------|------|--------|--------|----------|------|--|--|--|--|--|---------------------|-------|----------|----------|------|
| 수공업 | 복메우기 | 제작과 경 | 매우기 | | | | 깨매기 | 깨매기 | 명 | 명 | 가죽과 복통을 끈으로 엮는 과정. | 깨매 준다고 하자. 우리는 이제 꼬매다. {깨매기} 하자. 왜 이렇게 매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깨기복의 경우 가죽과 복통을 끈으로 엮는데 이를 '꼬매다', '깨매기' 한다'라고 말했다. '꼬매다'는 총칭 명사로 쓰이며, '깨매기' 기정을 끝으로 복 메우기가 완성이 된다. | 출전정보1 김관식(대전광역시) | 출전정보2 | 0 | * | 0 |
| 수공업 | 복메우기 | 제작과 경 | 장식하기/매우기 | | | | 못 박기 | 못 박기 | 구 | 구 | 복통을 매우는 방식으로 가죽과 복통을 두으로 고정하여 매우는 과정을 못 박기라고 한다. | 그것보다는 우리는 {못 박기} 하자. 못 박는다. 왜 이렇게 매기를 하고 있는데, 못 박기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 고장복과 같은 경우 복의 덧스런을 더하기 위해 장식못을 박는다. 장식못의 종류는 '신푸른', '비호문', '삼현못'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덧스런은 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못 박기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 출전정보1 김관식(대전광역시) | 출전정보2 | 0 | * | |
| 수공업 | 복메우기 | 도구 | 가죽 | | | | 타고 | 타고 | 니무로 만든 큰 원형의 붓이 있는 도구로 타래를 하거나 무두질을 할 때 사용함. | 니무로 만든 큰 원형의 붓이 있는 도구로 타래를 하거나 무두질을 할 때 사용함. | {타고}, 거기가 원형 나무로 만든 큰 원형 붓이 있는데 거기가 놓고 돌려주면은 거기가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 | | 출전정보1 김관식(대전광역시) | 출전정보2 | 0 | * | |

찾 아 보 기

ㄱ

| | |
|------------|--------|
| 가락 | 44 |
| 가자(架子) | 87 |
| 가죽 걸기 | 77 |
| 가죽 깎기 | 69 |
| 가죽 깎기(스기질) | 68 |
| 가죽 깎는 칼 | 53 |
| 가죽 꺼진다 | 85 |
| 가죽 다루기 | 63 |
| 가죽 다루기 도구 | 53 |
| 가죽 밝기 | 73 |
| 가죽 자르기 | 76 |
| 가죽 펼치기 | 75 |
| 각 | 49 |
| 개니끼 | 67 |
| 개니끼칼 | 55 |
| 개비끼 | 56 |
| 건고 | 86 |
| 계분 처리 | 66 |
| 고 | 85 |
| 고(鼓) | 44 |
| 고리 | 86 |
| 고장북 | 46, 82 |
| 곡선 | 49 |
| 곡선 잡다 | 60 |
| 공명 | 58 |
| 과산화수소 | 72 |
| 과수 | 72 |
| 과수 처리 | 72 |
| 광목 바르기 | 62 |
| 교방고 | 86 |
| 금긋기자 | 51 |
| 꺾매기 | 78 |

ㄴ

| | |
|-----------|--------|
| 나무 | 45 |
| 나무 다루기 | 58 |
| 나무 다루기 도구 | 48 |
| 노고 | 87 |
| 노도 | 87 |
| 농악북 | 85 |
| 뇌고 | 86 |
| 뇌도 | 86, 88 |

ㄷ

| | |
|----------|----|
| 단청 | 79 |
| 단청 하기 | 80 |
| 대패 | 48 |
| 도 | 85 |
| 도(鏝) | 44 |
| 된장 처리 | 66 |
| 등가악(登歌樂) | 87 |

ㄹ

| | |
|------|----|
| 로꼬로칼 | 50 |
| 리듬 | 44 |

ㅁ

| | |
|------|--------|
| 망치 | 48 |
| 메우다 | 44 |
| 목공일 | 48 |
| 못 박기 | 81 |
| 못북 | 84 |
| 무고 | 87 |
| 무두질 | 73 |
| 무두칼 | 54, 74 |
| 무뚝대 | 74 |

문묘(文廟)87
 물에 담가주기72

ㅂ

박달나무45
 백복84
 백통84
 버드나무45
 봉황80
 북 메우기44, 74
 북 메우다44
 북면79
 북통 디듬기60
 북통 짜다59
 북통 파기 칼50
 북틀58
 비호뭇81
 빗쪽매본49

ㅅ

사면고(四面鼓)87
 사물놀이44
 사포48
 삭고86
 산화제72
 살 잡다60
 상평뭇81
 서61
 서 파기61
 석회 처리66
 선농(先農)87
 소나무45
 소독제72
 송곳53
 쇠가죽53
 수구레47
 수구레 제거64
 솟들54
 스키대패53
 스키질53
 스키칼53
 시조북46

신주뭇81
 쌀겨 처리67
 썰기85
 썰기북82, 85

ㅇ

야교푼47
 아악기(雅樂器)87
 연향(宴享)86
 염장 처리63
 염장 치다63
 오동나무45
 오줌 처리66
 용80
 용고86
 우라구찌65
 우라구찌칼55
 울림통46
 옷다리44
 원형틀76
 원형틀 놓기76
 유안71
 유안(疏安) 처리71
 유제(柔製)73
 응고86
 인신(人神)87

ㅈ

장식79
 장식뭇79
 재 처리66
 재양 치다72
 재양(載陽)72
 전자대패60
 절고87
 조회(朝會)86
 좌고87
 줄 뜨다77
 줄뭇48
 진고87
 진고(晉鼓)87
 진도북84

짜구(자귀)60
 쪽47, 59
 쪽 그리기58
 쪽 내다58
 쪽북46, 82
 줄대61
 줄대 넣기61

大

참쌀48
 채색79
 천제(天祭)86

ㅍ

타래70
 타래하다70

태고57
 태극 문양80
 털 제거(재, 계분, 된장, 오줌, 석회, 쌀겨) 처리66
 톱48
 통 깎기 칼50
 통북45, 82

ㅊ

관소리북46
 표백제72
 피나무45

ㅎ

한지 바르기62
 황산암모늄71
 황소 가죽46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박영수(한남대학교)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9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1월 27일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